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동포 만찬 간담회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19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 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K-Pop,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을 상기하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동포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람회 유치는 BIE 회원국 179개국을 한 국가 한 국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박람회를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6.5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여 국민과 동포에게 드렸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고, 모국과 동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인 만큼, 프랑스 동포들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송남식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통령님 방문에 더해 재외동포청 출범도 축하드립니다. 공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통령

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 세계 동포들의 숙원이 이뤄졌다. 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재중차세대 협회 부회장은 "윤 대통령을 위하여"라고 건배를 제안하며 간담회의 분위기를 띄웠다.

박용근 전 한인회장은 "이민 사회는 저희 세대가 처음 개척했지만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립하는 계기는 재외동포청이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대통령의 임기동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노승혜 변호사는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 국적 등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보인다"며, "동포들이 한국과 프랑스 양쪽에서 주류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프랑스에서 공부 중인 황예민 학생은 "어릴 때는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이거나 질문을 받아왔는데,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한국인이냐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런 성과와 제가 한국

인이라는게 자랑스럽다.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한불 관계의 전도사가 되는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정식 출범했고 초대청장을 임명했다"며, "오늘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첫 순방이기 때문에 이기철 청장도 같이 가자고 제안해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이기철 청장은 "먼저 750만 재외동포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준 대통령님께 감사하다"고 밝히고, "조국과 동포들이 교류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또 자녀세대 정체성 문제도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가가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일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며, "첫째, 국가별로 거주하는 분들의 민원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전 세계 동포네트워크를 촘촘히 묶어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인 인재들과 기업인들을 연결해야 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국가의 자산도 되고 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자부심도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문화를 전세계에 전파해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더 크게 갖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프랑스 입양인단체인 '한국뿌리협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한국의 마음(Chœur de Corée)'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입양동포, 그리고 입양동포와 인연을 맺은 프랑스 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돌아와요 부산항', '부산 갈매기', '아리랑'을 부산버전으로 개사한 메들리곡 등을 선보였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글로벌 대학 30'예비지정 전국최다 4개 대학 선정!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경북도는 20일 교육부 '글로벌대학 30'예비지정 결과 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경북도 16개 대학이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접수해 전국 108개 대학과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번에 4개 대학이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글로벌대학 30은 담대한 혁신을 통해 세계 우수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대를 '글로벌대학'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학 한 곳당 5년간 1천억원을 전폭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은 글로벌대학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국공립대 통합 △3無교육 혁신 △로컬의 글로벌화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먼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대 통합 안을 들고 나온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대학은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며, 인문학 중심의 공공형 대학으로 대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안동대-경북도립대는 한국국학진흥원,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교육연구기관과의 통합운영으로 공공형 대학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k-인문학을 기반으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문콘텐츠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해나간다.

이외에도 바이오·백신·헬스산업과 연계해 국가 전략백신산업을 주도하고 경북 북부권 거점대학이라는 입지를 확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공헌에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포항공대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 전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로컬화를 선언했다.

학과간, 자산간, 국가간 경계를 허무는 '3無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진,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간의 상호협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인재를 기반으로 포항을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글로벌 창업 퍼시픽 벨라'를 구축하고, 지역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한동대는 로컬의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교육혁신, 지역혁신, 글로벌 혁신 등을 3대 전략으로 내놓았다.

모든 경계를 허무는 교육혁신을 위해 100% 학생맞춤형 전공 선택, 미국 미네르바대학, 애리조나대학과 연계한 윈 칼리지 공학대학 과정을 운영한다.

신산업 공동체의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ESG 스타트업 혁신파크 조성 및 글로벌 그린 리딩기업과 연계한 울릉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예비 지정된 4개 대학과 함께 대학별 '글로벌대학 공동 TF팀'을 구성해 앞으로 3개월 간 공공기관,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본지정을 위한 최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이 이점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받지 못한 12개 대학에서 제출한 혁신안을 검토해 경상북도 RISE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대학에서 제시한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내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 기업-지방정부-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 당 1천억원의 지방비를 추가 투자하고, 대한민국이 바라보고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지정 대학은 9월까지 혁신안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본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지정된다.

윤근수/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브루스 해럴 시애틀 시장과 기후변화·스타트업 육성 등 도시협력 논의



오세훈 시장은 20일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애틀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교류 강화를 논의했다.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장은 일베게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를 둔 시애틀 최초의 아시아계 시장으로,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브루스 해럴 (Bruce Harrell) 시장의 방

아마존, MS 등 글로벌 기업과 세계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시애틀 시장 최초 방문

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애틀은 아마존, MS 등 글로벌 기업 본사 및 보잉사의 생산공장이 위치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등 정보통신 기술(ICT), 우주 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선도 분야에 강점이 있는 대표적 창업도시이다.

시애틀은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7번째로 많은 도시이며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무역 주요 관문인 시애틀항의 세계 4위 교역상대국이다.

특히 서울시와 시애틀시는 올해 2월 오세훈 시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C40도시기후리더십그룹을 매개로 국제사회의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함께 노력 중인 파트너 도시이기도 하다.

C40 회원도시인 시애틀 시장은 친환경교통,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건축물 확대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인 '에메랄드시 계획(The Emerald City Plan)'을 발표. 추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오 시장은 올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도시 시장회의(WCSMF) 행사에 시애틀을 초

청하고, 앞으로 기후변화는 물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양 도시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전철 참전용사인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장의 부친을 포함한 많은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서울시청 외벽에 걸려있는 6.25 참전용사 사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애틀 시장은 "개인적으로 한국과 서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울 전체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며, "서울과 시애틀의 진출을 서로 지원하는 등 서울시와의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외국에 열린 시장이 되길 원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우수한 기업의 투자유치는 우리의 목표이자 비전"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국제 분석 능력 '우수'

ISO/IEC17025 인증기관인 미국 ERA 주관 평가서 우수성 입증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미국 환경자원 학회가 주관한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에서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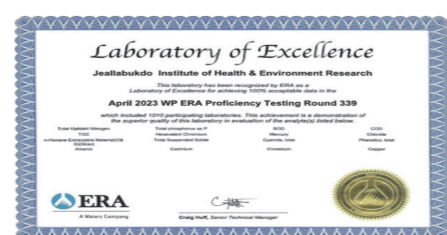
20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수질 21개 항목, 먹는물 17개 항목, 토양 12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 등급인 '만족(Satisfactory)'을 획득했다.

지난 3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국내수

련도 시험에서 수질, 먹는물 분야 등 모두 '만족'을 획득한데 이어 국제적으로도 분석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Environmental Research Associate)는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이다. 전세계 분석기관에서는 분석 능력과 측정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 및 세부적인 실험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김호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의 분석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최신 분석 장비를 확보하고 분석 능력을 강화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철/기자

안동시
CHANGE & INNOVATION
2023 연도시 승격 50주년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

안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 보유 최초 도시

2010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마을'

2015년 10월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2018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승원 '봉정사'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도산서원'

2019년 7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병산서원'

2022년 11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의 탈춤 '하회탈신굿탈놀이'

경북도의회, 2023년도 제3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장애인 고용 확대 등 다양한 현안과제 연구 선정

경북도의회는 6월 1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구' 외 5개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6건의 현안 연구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연구회(대표 최태림 의원)의 '대구경북신공항 배후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조성 연구'를 비롯하여 ▲경북 북부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 '경북 북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장 연계 활용방안 연구',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경상북도 의회 다문화가족 정책 연구회(대표 김일수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사례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경상북도 노인체육활성화연구회(대표 임병하 의

원) '경상북도 노인체육 진흥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법에 대한 연구',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 김홍구 의원) '경상북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 등 경북도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과제가 제안됐다.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경북도민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당면 현안에 대한 연구 과제가 제안된 만큼 충실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연구용역의 결과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연구과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연구용역을 최종 의결했으며, 과제별 일정에 따라 3~6개월에 걸쳐 연구가 추진되고 향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와 소관위원회 변경 후 50플러스 재단 첫 방문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홍보 강화와 재단 고유의 역할 강화 필요 지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제31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첫 일정으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3층)와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 중부캠퍼스 3층)을 방문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월 1일 제7대 센터장인 송창훈 센터장이 새로 임명됐고,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소관위원회가 변경(보건복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를 겸하여 시설 시찰을 겸하여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해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 힘, 구로구 제3선거구),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6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 힘, 중구 제2선거구)이 참여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송창훈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자원봉사센터 일련현황과 2023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았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 연계사업 부족, 봉사분야 다양화 필요,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노력 및 분위기 조성 필요, 싱크탱크 역할이 아닌 현장중심형, 재난상황에서 기민한 대처, 능동적 대응 등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 변화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현장방문 장소는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이성수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상담센터, 유튜브 스튜디오

등 중부캠퍼스 시설을 시찰한 후, 임성이 경영기획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종전에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였으나 지난 1월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 후 첫 업무보고로,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2016년 4월에 설립됐고, 현재는 4개의 캠퍼스(서부.중부.남부.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동부캠퍼스가 개관 예정으로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50플러스 재단의 사업 및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홍보 부족과 50플러스 재단만의 고유한 역할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원태 위원장은 "50플러스 재단은 존재의 위기에서 어렵게 기관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재단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노사민정,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실현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

김동연 지사 "파행 거듭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 노사민정은 대화 지속. 선언 넘어 실천방안을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할 것"

경기도 노사민정이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20일 화성 소재 자동차 부품 기업 씨아이오토텍에서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한노총이(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와 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경직된 모습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노동정책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뢰와 이해 속에서 이와 같은 공동실천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경기도는 한편에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고 또 한편에서는 상생과 포용으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두 축이 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난 4월 8일 경기도는 이미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화합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의 공동 실천선언 협약은 선언적인 파트너십을 넘어서 실천 방안을 발굴해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중요한 결실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경기도 노사민정이 서로 협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산업전환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 노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전환을 모색해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영계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선언문은 탄소중립 이행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산업과 지역,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노사민정이 RE100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천과 사업 재편, 고용 안정을 위한 직무 전환, 신산업 직무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과제로 삼고, 노동자도 합리적인 임금인상 요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맺었던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업종별·지역별 사회적 대화를 지속 개최하며 지역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기 위한 도 차원의 상시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공동선언에 앞서 자동차 부품기업인 씨아이오토텍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한 분야로 꼽히고 있어 올 첫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장소로 선정됐다.

최만식/기자



부산시의회, 국내 최초 해상공항 '가덕도 신공항' 해상교통방안 마련 착수

부산시의회원 가덕도신공항 해상교통방안 마련 연구 착수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 2)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 단체인 가덕도신공항 추진 연구모임(이하 '신공항 연구모임')에서 국내 최초 해상공항 '가덕도신공항'의 개항에 맞추어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 2029년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항건설 외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시되어야 할 상황이다. 특히 기존 김해공항의 한계점인 교통수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덕도신공항 접근을 위해 현재 구상된 교통수단은 육상 교통 즉 차량, 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실에 신공항 연구모임은 1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해상 교통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해당 연구는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해외 해상공항 사례분석을 통해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 해상 교통을 통한 공항 진입 교통체계가 마련된 것을 파악하고 가덕도 신공항 역시 개항과 함께 해상교통체계 마련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송충진/기자

한편, 신공항의 이용객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상 노선을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여행의 편의와 접근성은 물론 부산 시내 곳곳으로 진입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파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해상교통을 활용함으로써 항공과 해상교통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간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해상교통방안 연구는 교통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실적인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을 국토부와 부산시와 제시할 것으로 본다.

신공항 연구모임은 송현준 의원(대표, 강서구 2)과 간사인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부위원장을 포함해 건설교통위원회 백대근 위원장(북구1), 윤리특별위원회 배영숙 위원장과 황석칠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박철중 부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욱, 박종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도자: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경 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 내선 (113) 부 통 산 부: 내선 (117)
 광고국: 1899.9659 경 계 부: 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집안일 덜어드려요...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본격 추진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 돌봄공백 가정 우선 선정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야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총 64억 6천만 원을 투자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3,000가구에 지원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사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6월 27일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열흘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명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

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 자격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총 6회(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다. 해당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권역별 운영업체는 (도심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북권) 참사랑어머니회, (동북권)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서남권) 든든한 파출부, (동남권) (주)홍스토리생활 대리주부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도심권역은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북권역은 마포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동북권역은 강북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권역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동남권역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각각 관할한다. 사업관련 문의도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실제 엄마야아빠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영유아 가정은 육아로 인해 부족한 개인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양육과 가사 노동에 지친 엄마야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여유시간을 갖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앞으로도 엄마야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까지 원스톱 지원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 구성 및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 총력·피해 신고 접수와 기초조사 실시, 법률 상담, 금융·주거 지원, 심리상담 등



영등포구가 전세사기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설치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전세사기 예방 전담조직팀(TF)을 출범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부동산중개사 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주거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로써,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구민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이다.

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서울시, 영등포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와 전세가을(매매가 대비 전세가) 80% 이상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불법중개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부터 기초상담, 법률상담, 금융·주거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부여 완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요건을 갖춘 피해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피해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접수 및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구민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

한다. 한편 구의 전세가을(매매가 대비 전세가)은 서울시 평균 전세가을보다 높아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구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는 전·월세 피해 예방을 위해 각종 정보와 지원 제도를 구 홈페이지 내 '전월세 정보마당'을 통해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외에도 구는 최근 강동전세, 전세사기 등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교육 '집으로 가는 길'을 통해 전·월세 기초 교육과 1:1 상담을 진행했다.

김선순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정부,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올림픽 3대장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 1만 가구 이상 재건축 박차! '국대급 단지' 탄생 기대

"서구청장, 재건축 신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만들 것"

송파구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핵밀리타운', '올림픽기자 선수촌', '아시아선수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파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관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지난 19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송파구 내 7개 단지 재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1만 가구 이상이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파구에는 준공된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어 온 대규모 단지가 많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민선 8

기 역적사업으로 선정하고, 규제완화 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송파구가 건의한 2건이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송파구의 적극 행정으로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도 지난 5월 31일 1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 적정성 검토의뢰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D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지자체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의뢰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6월 9일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성 검토가 불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을 최종 확정 통보했다.

앞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가락 우창(264가구)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를 거쳐 재건축이 확정됐다.

2월에는 송파구가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완화로 올림픽핵밀리타운(4,494가구)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을 받으며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바로 재건축을 결정 지었

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받은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한양1차(576가구), 풍납미성(275가구), 풍납극동(415가구) 4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을 확정 한 바 있다.

구는 이번 아시아 선수촌(1356가구) 재건축 확정으로 올해 관내 총 7개 단지, 1만 가구 이상 정비사업 대상이 됨으로써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개정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관내 7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신속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서대문구, 인왕시장-유진상가 일대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결정



서대문구는 관내 인왕시장 및 유진상가 일대 재개발을 주민과 함께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역세권을 고밀 복합 개발하는 이 사업은 지역 내 필요 시설 확충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 후보지로 신청하려면 주민 동의 30% 이상이 필요하다. 나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높은 동의율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보통의 정비사업들은 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등이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이례적으로 주민 합의를 먼저 이룬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

확보에 차질이 없음을 물론, 이후에도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제재정비촉진지구(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일대)는 2010년부터 촉진사업, 재생사업 등 각종 사업 방안이 제안돼 왔지만 주민 간 오해와 갈등, 사업성의 모호함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됐다.

이에 서대문구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해 4월부터 이달까지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3회 개최했으며 주민 개별 및 집단 면담도 수시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주민 요구 사항과 의견을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시킨 활성화 방안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달 13일 홍제마을활력소에서 열린 3차 소통의 장에서 주민들이 사업 방식을 직접 선택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한 주민은 "이제까지 구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었다"며 "구청에서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주니 사업이 빠르게 잘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에서 이례적인 '주민합의 후 계획 수립' 방식으로 빠른 사업 추진 전망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과거 중단됐던 홍제지구중심 개발사업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무엇보다 주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구가 직접 나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주민 합의를 이루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속도가 주민의 이해와 직

결되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이를 통해 홍제지구중심이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후보지 선정, 그리고 2024년 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은 현재 초등학생 4학년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되는 구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19일 개최된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구강보건법'에 맞춰 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아동 구강보건 사업을 구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박다미 의원은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우리 구 아동들에게 더욱 폭넓게 평생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저소득층 아동뿐 아니라 강남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불소도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 밝혔다.

정동희/기자

염태영 경제부지사, 20일 제2기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도 뷰티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걸음

경기도, 뷰티산업 경쟁력 충분...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강화해야

경기도가 국내 화장품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뷰티산업의 역량과 경쟁력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제2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뷰티 트렌드 변화와 경기도 뷰티산업 대응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화장품 제조업체 4,428개 중 37.3%인 1,651개가 경기도에 등록 ▲화장품제조업 등록 공장 1,302개 중 41%에 달하는 933개가 경기도 위치 ▲2020년 기준 경기도 화장품제조업 매출액은 5조 7,640

억 원(전국비중 35.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경기도에는 전국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의 절반이 입지하고 있고,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 부서 3분의 1이 분포해 우수한 연구개발환경을 갖춘 한편,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2012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뷰티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 육성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도 여타 시도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도내 뷰티산업 기업체의 정책 수요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수출·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관련된 정책지원 필요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뷰티산업은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고 수출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증가해와 수출 확대를 최상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여러 면에서 뷰티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와 장단기 시행 기간을 설정해 뷰티산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은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2023년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논의했다. 제2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는 위원장(염태영 경제부지사)을 포함

해 관련 부서 국장 1명,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새로 구성된 제2기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며 올해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뷰티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립될 기본계획에 꼭 필요한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화성시문화재단, 2023 상반기 시민 기획사업 '씨네 봉담, 나를 찾아서' 성료



(재)화성시문화재단은 지난 17일 봉담 삼봉근린공원에서 시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 시민 기획사업 '씨네 봉담, 나를 찾아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23 시민 기획사업은 화성시에서 주최하고 화성시문화재단과 화성시 문화자치 주민협의체 '화목한 화성 서남부권(이하 협의체)'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역의 문화 현안 해소를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

행사가 진행된 봉담은 신도시 조성 때 따른 젊은 세대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나,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부족해 문화예술 향유를 바라는 갈망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실제 봉담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에서 행사기획부터 홍보,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롯이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오감을 만족하는 향기 체험, 미각체험, 신문지 놀이터 등 체험부스 10개와 매직 버블 공연, 가족영화 상영 등 풍성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신아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민이 능동적으로 창조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생산자로 양성해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 본격 시동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본격 나섰다. 시는 20일 오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고양시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 지하화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로는 1990년대 경기 서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도로 수요를 대비하고자 건설된 도로로, 현재 1일 교통량이 20만대에 달한다. 자유로는 고질적인 교통체증 발생으로 확장 및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올 2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주 지하고속도로' 및 서울시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에 맞춰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인접 파주시 인구 증가, 차량 보유대수 증가, 이동 동선의 다양화 등으로 자유로는 이미 포화상태가 됐다"며 "자유로를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인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자유로의 확장의 필요성과 공간적 확장인 지하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동환 시장 "자유로 수평적 한계 극복 방안 지하화 필요"

주제토론에는 박태원 광운대 교수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김연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을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수단과의 연계, 도로교통시설 확보 후 도시개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발표됐다. 이동환 시장은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는 자유로의 수평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장기과제인 만큼 지속적인 전문가 학술 토론회 및 대시민 토론회를 실시해 고양시민과 소통하며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어르신 태극권 체조교실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안양시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등 4곳에서 '2023년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르신 태극권 체조교실, 체력증진 근력 체조교실 등 2가지이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주 2회 열린다.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태극권 체조교실'은 근력 증진을 위한 기본운동, 태극권 8식·24식 수련, 관절균형 회복 운동 등으로 구성되며,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20명)와 박달2동 서초회관(20명)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력증진 근력 체조교실'은 근력 강화를 위한 근력 체조, 밴드 운동 등으로 진행된다. 부림동 행정복지센터(20명), 갈산동 행정복지센터(20명)에서 실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체육과 또는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최태호 안양시장은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양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안양시가 건강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유용/기자

6월 20일~12월 15일 시민 80명 대상 안양시



광명시, 어린이공원 내에 생활 속 정원을 담는다

광명시, 2026년까지 어린이공원 30개소에 정원 조성 '정원문화도시'를 추구하는 광명시가 관내 어린이공원에 정원을 조성한다. 시는 관내 54개 어린이공원 가운데 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지와 가까운 어린이공원에 정원을 접목해 시민과 어린이들이 정원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정책이 바로 정원문화도시"라며 "시민 누구나 걸어서 가까운 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해 시민의 환경을 보강하는 공간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는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9월까지 11개 어린이공원에 정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철산동 지역 ▲철산 어린이공원 ▲철산13단지 어린이공원, 하안동 지역 ▲무지개 어린이공원 ▲나래 어린이공원 ▲꿈나무 어린이공원 ▲개나리 어린이공원, 소하동 지역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달맞이 어린이공원 ▲꽃향기 어린이공원 ▲성화 어린이공원, 광명동 지역 ▲동지 어린이공원 등이다. 조성될 정원들은 밖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정원과 양지의 들꽃정원이 이루는 초록이색 정원을 테마로 조성한다. 기존 소나무 숲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나무와 어울리는 나무를 심어 '솔나무 정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들꽃과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어 '들꽃마루 정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운동 공간을 효율성을 고려해 재배치하고 낮은 놀이시설은 교체한다. 시는 어린이공원 정원 조성 관련 22일부터 각 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22일 철산1동, 23일 철산3동, 27일 하안2동, 하안3동, 28일 소하1동에서 각각 개최한다. 광명6동과 소하2동은 7월 중에 개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하는 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인천시,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 유치로 '초격차바이오도시' 완성

인천시-롯데, 송도 11공구 내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제조시설 유치 MOU 체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메가플랜트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 김진용 경제청장, 롯데지주(주) 이훈기 사장, 롯데바이오로직스(주) 이원직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양해각서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산업

시설용지 내 롯데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의약 연구개발 및 제조시설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연내 부지확보 및 시설착공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확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연초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여 3개의 바이오의약 연구개발·제조시설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개의 제조시설 당 12만 리터 규모의 항체의약품 배양설비를 갖추어 총 36만 리터의 항체의약품 메가플랜트를 구축하게 되며, 바이오의약 분야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바이오벤처 이니셔티브, Bio-Venture Initiative)도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송도는 이미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최고의 바이오 기업들과 머크, 싸노타우스 등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이 대규모 연구개발·제조 시설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22일 바이오의약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조성사업을 위해 인천시, 중소벤처기업부, 바이오분야 30여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6월 9일에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와 제약 바이오실용화센터가 착공되는 등 혁신적 연구개발과 우수한 인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결식에서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송도 메가플랜트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롯데지주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조속한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경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오늘 양해각서 체결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글로벌 경쟁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 시설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롯데바이오로직스 투자유치로 인천은 '초격차 바이오도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고 평하고,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구심점이 되도록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유치와 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남/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서 감사패 받아

보훈 시책 추진,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애쓴 공로 인정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시책 추진과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에 애쓴 공로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부터 6월 20일 감사패를 받았다.

문명철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사, 김용환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 송병조 성남지회장 등 18명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청 4층 시장 집무실을 방문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는 전후나 공무집행 과정에서 몸을 다친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보훈단체로, 1951년 5월 창립됐다. 현재 10만 6000여 명이 회원으로 속해 있으며, 이중 6.25전쟁, 월남전 출신은 56%인 5만 9000명이다.

성남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7300명에게 매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설, 추석에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택시 이용요금의 75%(1회 1만 5000원·월 10회 한도)도 지원한다.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1200명에게는 올해 1월부터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그분들의 공훈에 보답하고,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보훈시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율/기자



용인특례시, 경희대와 반도체 분야 지역인재 양성 손잡았다

이번 2학기부터 반도체 융합학과 개설...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전문인력 육성

용인특례시와 경희대학교가 반도체 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시는 시장 접견실에서 경희대학교와 '용인 반도체 분야 지역인재 양성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경희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관련학과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관·학이 협력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경희대는 오는 2학기부터 반도체 융합학과를 개설해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0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새로 개설하는 반도체 융합학과에는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되면 4학기

동안 공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학위를 이수하는 동안 매 학기 등록금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시는 경희대학교(학부, 대학원 과정)의 반도체 분야 우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특히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이 경희대학교 반도체 융합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균태 경희대학교 총장, 홍충선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중요한데, 경희대와 이런 협약을 맺고 함께 협력하게 돼 뜻깊다"며 "실습 장비 지원 등 관련 기업들의 도움도 적극

- 용인 반도체분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

용인시·경희대학교 상호협력 협약식

2023. 6. 20.(화) 용인시청 접견실

요청하고 시가 인재 양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장은 "이번에 일반대학원에 반도체 융합학과를 개설해 전문 인력 양

성에 작게나마 기여 할 수 있게 됐다"며 "반도체 메카도시인 용인시와 협력해 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안산시,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운영

직업상담사 배치해 장애인 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안산시는 20일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최초로 운영되는 장애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는 (사)안산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서부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통합하고 고용유무를 일원화하고자 구축됐다.

센터는 상록구 사동 소재 장애인지원센터 내 사무실에 위치해 있으며, 전문 직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 일자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취업 후에도 장애인과 구인업체가 고용관계를 지속 유지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직상담 및 연계 ▲구직자 직무교육 및 취업 전 준비교육 ▲장애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훈련·알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 고용안정, 생애주기별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거점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행하게 된다.

특히 취업 후에도 장애인과 구인업체가 고용관계를 지속 유지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구직상담 및 연계 ▲구직자 직무교육 및 취업 전 준비교육 ▲장애인일자리박람회 개최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개발·훈련·알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 고용안정, 생애주기별 유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안산시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가 장애인 일자리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거점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 청소년 '행복감'은5점 만점에4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민선8기1주년 청소년청년정책토론회' 개최

수원시청소년들의 '행복감'과 '공동체 시민성'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수원시 거주 만 11~17세 청소년 1만 905명을 대상으로 '2023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소년들의 '행복감'과 '공동체 시민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청소년청년 정책토론회'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행복감' 3.92점, 전국 평균보다 0.6점 높아
수원시 청소년의 행복감은 3.92점(5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0.6점 높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진행한 '청소년활동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의 '행복감' 평균은 3.86점이었다.

'공동체 시민성' 3.43점(4점 만점)으로 전국 평균(3.38점)보다 0.5점 높았고, '자아존중감', '안전관리' 항목은 전국 평균 수준이었다.

설문 조사는 지난 4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생 270%, 중학생 43.4%, 고등학생 29.5%였고, 성별은 남자 49.0%, 여자 50.8%(무응답 0.2%)였다. 조사 항목은 ▲행복감 ▲자아존중감 ▲진로 ▲세계시민성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대인

관계역량 ▲안전관리 ▲정주의식 ▲청소년활동 등이었다.

'행복감'을 측정하는 세부 문항에서 '나의 삶에 만족한다'는 3.87점,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3.87점이었다. 행복감 평균은 초등학생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3.90점, 고등학생 3.85점이었다.

'공동체 시민성' 세부 문항 중 '시민활동의 중요성·환경보호운동'이 3.5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자아존중감' 세부 문항에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3.99점(5점 만점),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는 3.81점이었다.

'스포츠통어리 문화활동' 하고 싶지만 시간 부족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은 '스포츠 활동'이 27.3%로 가장 많았고, '놀이 활동' 23.5%, '문화 활동' 21.5%, '진로활동' 11.6%, '자원봉사 활동' 9.3% 순이었다.

'청소년 활동 참여 방해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이 3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부 방해'(14.1%), '어떤 활동인지 모름'(13.0%), '내용이 맘에 안 들'(11.5%), '같이 할 친구 없음'(7.4%), '신청 방법 모름'(7.3%)이 뒤를 이었다.

'민선 8기에 바라는 청소년·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격려사, '2023 수원시 청소년 실태조사(양진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전략사업 TF팀장)'·'2022 수원시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수원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 이지효 팀장) 결과 발표, 정책토론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청년, 시민, 청년정책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지난해 6~7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1000명(남자 52.8%, 여자 47.2%)을 대상으로 제1회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했다.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주거 ▲교육 ▲문화 ▲일자리 등 12개 부문 50개 항목을 조사했다.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거지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 청년들은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청년정책'(1.2 순위 합산)으로 '주거지원'(7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취창업 지원'(69.0%), '복지문화 지원'(30.0%)이 뒤를 이었다.

'행복한 삶의 중요 요건'은 '재산, 경제력을 선택한 청년'이 44.8%로 가장 많았고, '학목한 가정' 18.3%, '자아 성취, 목표 의식'이 13.0%였다.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주거 관련 정책은 '공공주택 확대'(39.9%), '청년 보증 전세금 대출 지원'(37.7%), '청년 전세임대 확

대'(12.3%) 등이었다.

수원시는 조사 결과를 수원시 청소년·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년은 청소년, 청년 정책 통합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며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청년들이 시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스스로 바꿔나가길 바란다"며 "청소년, 청년을 늘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민경 경기도 청소년학과 교수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김미향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 강영배 대구한외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연구위원,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 사업본부 수석 전문위원, 조재혁 수원시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해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수원시 정책과 사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미래 주역인 청소년과 청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대한민국 일자리 중심 경북, '현실 청년(4060)재도약' 앞장선다

경북도는 21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2023년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활동의 핵심 주제인 신중년의 인생 재도전과 구직 희망자의 취업을 도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적기적소에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지난해에 이어 경북도가 추진하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올해는 지역의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더해 확대 시행했다.

2023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는 지역 기업, 구직자, 도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 미래일자리 전문가포럼 위촉식과 개막 토크쇼, 스타강사 초청 강연과 힐링 콘서트, 우수기업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종합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개막 토크쇼는 지역의 핵심 경제주체라고 불리는 '신중년, 인생 2막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지역 일자리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역의 경제 핵심 주체로서 경제활동 인구수의 74% 이상을 차지하는 신중년

2023 경북 아웃플레이스먼트 페스타 개최



(4060) 세대의 고용안정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주민, 지자체의 역할과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면서 참가자들의 공감을 받았다.

한편, 경북도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트릭(예정) 근로자 이.전직 △트릭 기술 인력을 활용한 기업 기술 고도화 △지역자원 기반 창업 △중소기업.파트타임 일자리 △취업 연계 교육.훈련 사업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경북의 인구 활력과 일자리 사업성과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경북 미래 일자리 전문가포럼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포럼은 형식적인 자문 역할로서 기능이 아니라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스타강사 김미경, 뮤지컬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재도전을 해 눈길을 끈 가수 애녹을 초청해 도전하는 삶에 대한 소통과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재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부여의 시간을 제공

했다.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잡(JOB) 매칭데이를 행사와 함께 연계해 지역기업 20개사가 기업 홍보관을 운영하고, 참여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구직자 채용 컨설팅, 증명사진 촬영, 심리상담 등 행사장 곳곳에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참여자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집안의 가정으로서, 지역의 선배로서 경북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신중년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함께 꿈을 키워갈 수 있고 경북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봄배추 대체 작물로 양배추 수확 한창

영덕군 '바우 농산물 수출공선회'는 봄배추 대체 작물로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양배추를 수확해 수출 증대와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영덕군은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 봄배추보다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고 단위 생산량이 높은 양배추 재배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1.2ha 농지에서 소규모 시험 재배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달성면과 남정면을 중심으로 6.5ha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460톤의 양배추를 대만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판매할 예정으로, 약 1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된다.

또한 영덕군은 양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위해 농가와 수출업체를 연계해 농가, 수출물류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김기동 농촌지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봄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양배추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부산시, (수습)역학조사관 역량강화 교육으로 법정감염병 적극 대응 나선다!

3월부터 홍역,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결핵, 엡폭스 등 교육

코로나19 일상회복이 추진됨에도 부산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탄탄히 기반을 다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부산시와 각 구·군의 (수습)역학조사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이란 감염병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 등 관련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가를 말하며, 지난 2016년 감염병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역학조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기본교육을 수료한 다음, 감시·유행보고서를 작성해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교육은 코로나19로 역학조사관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습)역학조사관이 법정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장역학조사 사례에 대해 충분히 습득하도록 해 이들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한국의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 수준을 고려해 제1급~4급 법정감염병으로 나누고, 급수에 따라 신고시기 및 대응 절차 등이 다른 만큼 이번 교육이 이들의 법정감염병 대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홍역,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주에는 전문가와 현장경험자를 강사로 초빙해 결핵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참여 대상자를 다양하게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엡폭스 위기단계가 상향된 4월에는 엡폭스 대응체계 구축 회의와 환자·접촉자 역학조사 기술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감염증(CRE감염증)·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조류인플루엔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감염원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며, "올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습)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교육이 이를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수습)역학조사

관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익힌 음식 먹기,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진료·신고 등 개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예천군,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마스터반 수료식 개최

맞춤형 실습교육으로 농산물 가공 자신감 얻어

예천군은 19일 오후 5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대교육장에서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마스터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지난 5월 1일부터 매주 4시간씩 총 7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이론 교육은 농부창고와 더저란 각 대표들이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했다.

실습 교육은 습·건식 장비를 활용해 과일음료, 잼, 동결건조, 곡물 분말, 조청 등을 직접 생산해 보며 가공유형별, 농산물별 가공 공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스터반까지 수료한 교육생

은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 가입 자격을 갖게 되며 향후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돼 습·건식 유형별 가공공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마스터반을 수료한 교육생 모두 축하드리고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원으로 가입해 조합원들과 함께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는 등 더욱 전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영길입암면지사협 민간위원장 외 1명 경북도지사상 수상



영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5일 '2023년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입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영길 민간위원장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조성대 주무관이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공로로 경북도지사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수상한 강영길 민간위원장과 조성대 주무관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등 민·관 연계 협력의 중추 역할을 했기에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근수/기자

이번 경북도지사상 포상은 경북도와 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2023년 경북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로 23개 시·군 협의체위원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개최됐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기구로 사회복지 기관, 법인, 시설, 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내 23개 시·군과 330개 읍면동에 설치, 9천여명의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양군은 250여명의 대표팀, 실무팀, 실무부과, 읍면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송군의회, 도평초등학교 대상 제3차 '어린이 및 청소년 모의 의정체험 프로그램' 실시

청송군의회는 지난 6월 19일 도평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3차 '어린이 및 청소년 모의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회의 의의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된 시나리오에 따라 회의에서의 의사 결정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날 도평초등학교 학생들은 '제266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개최식'을

참관했으며, 의회 기능과 역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권대준 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의회의 민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며 의회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좋은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 도서지역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3개 시군 간담회 개최

통영시·거제시·남해군 통합사례관리사 및 담당공무원 도서지역 복지증진 위해 고심

통영시는 지난 14일 통영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도서지역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3개 시·군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3개 시·군의 통합사례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 담당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도서지역의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1·2부로 나눠 진행 된 회의에서는 각 시군별 지역적 특성, 통합사례관리 업무 구조, 절차, 인력 규모 및 배치 등 시·군 현황을 공유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통합사례관리 운영을 추진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

서지역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이어갔는데 인력 충원, 복지선(船) 운영, 도서지역 특화사업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적안전망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도서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토론했다.

한편, 통영시는 2016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개편을 시작했으며, 지난 1월 도서지역 3개면(육지면, 한산면, 사랑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을 설치하며, 전 읍면동에 전담팀 설치가 완료됐다.

통영시는 복지전달 공공체계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등 하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준/기자

구미시, 미래교육 혁신...아시아 우수인재 교류한다

한-아시아 교육 협력, 구미 K-TVET 포럼 개최

제1회 구미 K-TVET 포럼이 20~21일 양일간 경운대학교 벽강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창호 구미시장, 안주환 구미시의회 의장, 아시아 16개국 장·차관 및 대학 총장급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구미 K-TVET 포럼은 한-아시아 교육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간 기술직업훈련 교육 협력을 위해 아세안 9개국,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범아시아 국가 13개국 및 미국, 영국, 프랑스 대표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며, SOM-ED 정기회의(아세안 교육분야 고위관리 회의), 미래교육전문가 포럼, 한-아세안 총장 포럼, 중앙아시아국가들로 구성된 CIS 세션 등이 진행됐다.

시는 아세안(SOM-ED)과 교류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 역사를 이끌어온 구미국가산단의 집적된 ICT 기술과 지역산업에 기반한 4개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반도체, 방산, 메타버스,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 분야 이외에도 참가국과 경제·문화 교류 협력을 위해 지역 경제단체 및 기업인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국제사회 연대 협력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게다가, 경상북도의 지역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우수 유학생 유치 정책 모델을 제안, 대학교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대학-산업체 연계 미래 교육 방향성 제시를 위한 정책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SOM-ED 등 80여명의 외국인 참석자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와 삼성전자, LG 넥스원 등 지역산업 투어를 통해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주도할 지방시대의 지역산업 연계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창호 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주요 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통해 교육,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구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기자



안동시,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 선정

안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공동참여형으로 지역 내 디지털 거점 조성 2027년까지 5년간 약 30억 원(전액 국비) 사업비 확보

안동시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2023년 K-디지털 플랫폼 공모사업'에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 2027년까지 5년간 약 30억 원(전액 국비)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K-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훈련을 지원하고 다양한 수요자에게 모든 자원을 공유·개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진행된 K-디지털 플랫폼은 현재 전국 26개 기관 31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경상북도에는 포스코에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안동시는 경북도 및 2개 대학과 협력하

여 빠르면 올해 안에 시민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장소에 교육장, 공유 오피스, 컨퍼런스 룸 등을 갖춘 K-디지털 플랫폼 전용 공간을 구축한다.

시는 시민 누구나 디지털 관련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중심의 디지털 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학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등을 위한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K-디지털 플랫폼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하여 안동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등 경북 북부지방 디지털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지질공원, 환경부 인증 및 유네스코 지정 확대 추진

의성, 경북도 4번째 우리나라 15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쾌거

경북도는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유재철 환경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21일자로 의성군 전역이 도내 4번째이자 전국 15번째 환경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지질공원은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자연분야 3대 유네스코 보호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지질유산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지질공원'과 환경부가 인증하는 '국가지질공원'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인증된 의성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174.68km²를 공원구역으로 가지며, 금성산, 제오리 공룡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이 포함된다.

이번에 추가로 '문경시'는 삼엽충 화석산지 및 문경새재 등 국제적·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해 국가지질공원으로서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경북 동해안 일대의 해안과 일부 낙동정맥을 포함하는 2,261km²의 면적을 갖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은 고생대부터 신생대 제3기 동아시아 화성활동과 지질특성을 규명하는데 최적지로 평가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경북도는 이달 말까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신청'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거친 뒤 올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4월까지 유네스코의 서류평가를 거친 뒤, 5월부터 8월중에 5일간의 현장평가를 받게 된다. 9월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위원회 심사로 지정여부에 대한 예비 결과가 발표된다.

최종 지정승인은 그 다음해인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범지구대회에서 집행이사회 의결로 결정된다.

한편, 2017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청송은 4년마다 받게 되는 재지정 평가를 코로나19로 인해 2년 정도 연기된 지난해 9월에 받았다.

그 결과 지난 9일 유네스코로부터 재지정 승인을 통보받아 2024년 말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앞으로 경북도내 국가지질공원 인증과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지질공원제도를 활용해 경북

이 가진 천혜의 경관과 자연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북 도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청년예술인을 위한'2023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 워크숍 - 아트캠프' 추진

청년 예술인을 위한 국내 현직 전문가들의 특강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내 청년 예술인의 실무 역량 강화 및 동기 부여를 위한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시행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 청년 예술인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집중형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 워크숍'은 공동과정 및 선택과정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동과정에서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기획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택과정에서는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로 세분화해 활동 분야별 깊이 있는 실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6월 19일~7월 10일까지 신청 30명을 모집하며, 강의는 8월 2일~8월 4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 수강실 및 교육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청년 예술인으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나 기획자 또는 대구권역 내 예술대학 재학생 이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예술인은 9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과정에 참석한 청년 예술인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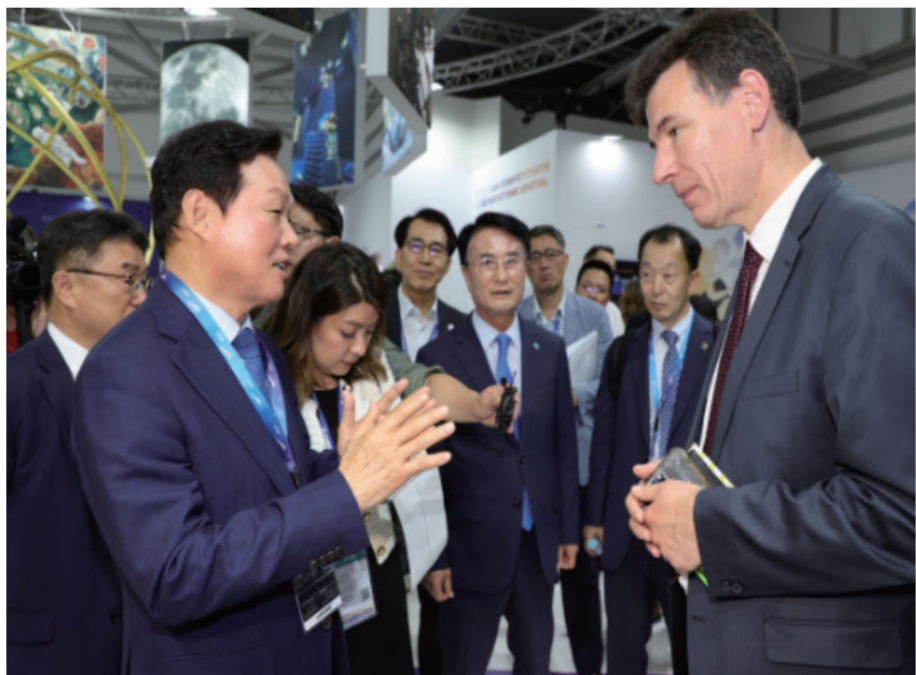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대구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경남대표단,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의장 면담,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

프랑스 파리 항공우주산업전(파리에어쇼) 참가 해외 진출 기업지원 강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19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경남대표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창업 집적 시설인 스테이션 에프(Station F)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았다. 박 도지사는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회회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함께 스테이션 에프(Station F)에 입주해 있는 HEC Paris 관계자로부터 프랑스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테이션 에프는 방치됐던 철도역을 창업 지원 시설로 개조한 것으로 면적 34,000m²에 310m에 이르는 길로 에베탑을 닮아놓은 것과 비슷하다. 3천여 개 기업들의 입주 작업 공간인 크리에이티브존(create zone)과 지원·협업하는 셰어존(share zone), 일반인들

이 이용할 수 있는 chill zone) 등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동부권역의 청년창업 아카데미 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에 서부권역의 그린스타트업타운, 2027년에는 중부권역의 캠퍼스혁신파크를 개소해 대규모 3대 창업거점을 순차적으로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스테이션 에프의 성공모델을 경남의 창업생태계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 도지사는 "최근 그린스타트업타운 선정으로 권역별로 창업거점을 확립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스테이션 에프에서 창업인프라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제조 창업부터 콘텐츠산업 등 비제조 창업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투자받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파리 항공우주산업전 행사장 내에 위치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독립 전시장에서 필립 바티스트(Philippe Baptiste)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동식 사천시장,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구자천 경남상공회의소협회회장이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국립우주연구센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남도와 프랑스의 우주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필립 바티스트 의장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는 항공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도지사는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청의 체계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경제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와의 우주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대표단은 도내 기업인 B사와 테크닉 에너지(TechNip Energies) 간 파트너십 체결식에도 참석했다. 파리 소재 테크닉 에너지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B사 회장, 대표이사, 데이비드 타드베르 부사장, 탕구이 르메르 오피스헤드, 안드레아 틀리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지난 10년간 4억 4천만 달러(한화 5,3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으며, 특히 2021년과 2022년 중동지역 초대형 가스전 개발 사업 단일 공사로 약 1억 6천만 달러(한화 1,900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크닉 에너지는 글로벌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최근

중동 지역 초대형 가스전의 2차 계약을 수주했으며, B사는 이 분야의 핵심성장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어 약 1천 6백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박 도지사는 "친환경 분야의 글로벌 최고기업과 지역기업이 협력해 파트너가 된다면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이번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기술인력 양성 등 협력관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대표단은 이날 저녁 항공우주산업전에 참가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도내 기업 관계자 3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내 젊은 인력양성을 위해 경상국립대 총장과 기업을 대표하는 경남상공회의소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도내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대표와 항공기 동체 및 각종 부품 등을 제작하는 도내 기업 30여 개 사 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박 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 기업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기업인들이 경남을 이끌어 가야 한다. 항공우주산업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남의 재도약을 이끄는 주력산업이 될 것이며,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대표단은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산업전에서 경남의 항공산업 기반(인프라)과 투자환경을 집중 홍보한다. 행사장에서는 우주항공산업 분야 투자유치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업무협약과 계약 체결을 지원하며, 옥시티니주 상공회의소와 산업경제 민간 교육협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재현/기자

경북형 한류 및 유네스코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실시

경북도, 국외전담여행사 초청 테마형 상품개발 현장답사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울 초 지정된 국외전담여행사 10개사를 경주와 포항으로 초청해 1박2일 테마형 상품개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경북도의 한류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광지를 집중 마케팅하고 경북도 브랜드화 추진 및 인바운드 시장을 겨냥한 경북 테마형 관광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여행사들은 경북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관광지인 경주 석굴암과 양동마을에서 타종 및 옛 만들기 체험을 하고, 한류 관광지인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사방기념공원 및 청하공진시장 등을 방문해 경북의 특화된 테마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공유했다.

또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공사는 답사 일정 중 경북 국외전담 여행사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요 방문 시장 여행객 행태, 경북 관광상품 판촉현황 및 홍보마케팅 전략 등 방한 관광객의 선제적 경북 유치를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외전담 여행사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현장답사와 간담회를 계기로 경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K-



라마 촬영지를 활용한 코스를 상품화해 많은 해외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민·관·군·경·소방 합동 양수발전소 유치 챌린지 진행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연계 양수발전소 유치 챌린지 진행 오도창 영양군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 여름 인명사고 없도록 애써달라” 당부

영양군은 지난 21일, 영양을 현동교에서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연계, 민·관·군·경·소방 합동으로 양수발전소 유치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영양군청 및 영양경찰서, 영양119안전센터, 영양군예비군중대, 영양군의회소방대연합회, 영양군안전보안관, 물놀이안전지킴이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영양119 안전센터의 협조 하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 희망을 담아 범국민 참여 챌린지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양수발전소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가 사

업예정지로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비 2조원 가량이 투입되어 영양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되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회생시키는 우수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금일 캠페인에 참석하여 양수발전소 유치를 애써주시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련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관계자와 물놀이 안전지킴이분들은 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 올 여름 인명사고 없이 무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지역기업 대상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설명회 개최!

대구경북신공항사업에 시민참여형 펀드 구성방안 모색



대구광역시 6월 21일 오후 2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대구시와 지역기업 간 소통 강화 및 성공적인 신공항사업을 이끌어내

기 위해 개최된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군공항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된다.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대신하여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 선정이 필

요하다.

사업대행자는 공공주도 방식의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구성돼야 하며, 선정된 공공시행자가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참여자를 공개모집해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 구성의 한 축이 될 지역기업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향후 추진일정 및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접수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 참여 우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지역기업의 공동출자법인 참여와 하도급, 공

사자재, 건설기계, 인력 분야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 체결 시 우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펀드 등을 조성해 신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창출된 수익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대구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후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 우수기업이 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글로벌 도시의 마중물이 될 신공항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와 지역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 여성농업인들,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 시험에서 교육생 22명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바리스타 스킬 프로모셔널 2급 자격과정’교육은 다양한 커피 문화의 지식과 기본이론, 실습 등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하여 여성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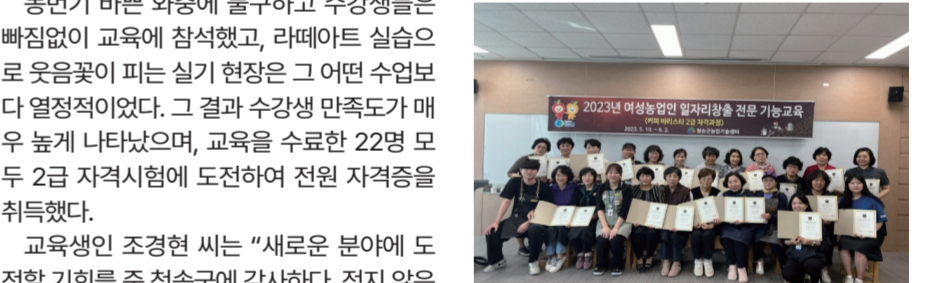
농번기 바쁜 와중에 불구하고 수강생들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했고, 라떼아트 실습보다 웃음꽃이 피는 실기 현장은 그 어떤 수업보다 열정적이었다. 그 결과 수강생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을 수료한 22명 모두 2급 자격시험에 도전하여 전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생인 조경현 씨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준 청송군에 감사하다. 적지 않은

나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껴지고, 앞으로 카페 취업을 통해 창업도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교육에 참석한 여성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문화, 이웃과 일상에서 만나다. “부산진구 찾아가는 문화행사” 주민 큰 호응

부산 부산진구는 관내 곳곳에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집 앞, 시장, 삼지공원 등 일상에서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작은 음악회로 가까운 곳에서 구민들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된 행사이다.

2023년 상반기에 음악회 8회, 영화관 1회로 총 9회 개최됐으며 1,000여명의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

신청기관(단체)의 신청에 따라 일정과 음악 장르를 맞춰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록 2~3개팀 공연의 작은 음악회지만 예술인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되어 흥겨움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난 4월 개금배수지체육공원에서 개최한 음악회는 곳은 날씨에도 1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여했으며 “오랜만의 야외 공연으로 너무 즐거웠으며, 다음에 꼭 다시 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5월 양정칸타빌레바스아파트에서 개최한 음악회는 클래

식과 대중음악의 조합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으며, 상반기 마지막 행사인 6월 개최된 (재)영화의 전당 찾아가는 영화관 지원사업 “가야강과개공원 달빛영화관”은 음악과 영화를 함께 선사하여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편안하게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음악회는 7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송충진/기자



봉화군,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봉화군은 지난달 충북 청주와 중평에서 구제역이 11차례 발생하면서 인접 7개 시군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이 지난 15일 해제되어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평소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8일 충북 청주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며, 발생농장(11호) 방역대 내 우체류농장(373호) 대상 임상검사 및 항체-항원검사 결과 이상 증후가 없고, 지난달 21일 완료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충북지역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구제역 한고비 넘겨

과 주요도로에 안동봉화축협의 공동방재단 차량 4대와 군 방역차량 1대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10일 청주 한우농장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청주·중평 소재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1,510두, 염소 61두가 살처분 된 바 있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축산농가는 경각심을 갖고 백신접종을 포함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향체 형성 기간이 지남에 따라 농식품부의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 하향 발표에 따라 이뤄졌다.

군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소, 돼지, 염소 우체류 5만 4천여두에 대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하고 방역 취약농장



경주시, 건천 천포2·외동 개곡3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천포2지구 565필지(242,058.4㎡)와 개곡3지구 22필지(16,623.4㎡) 새 지적공부 발급

경주시는 ‘건천 천포2지구’ 565필지(242,058.4㎡)와 ‘외동 개곡3지구’ 22필지(16,623.4㎡)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토지대장, 지적도를 발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그간 건천 천포2지구와 외동 개곡3지구는 지적측량 시 도면간의 접합,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지적 불합합 지구였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며, 현실상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계에 대해 경계 재조정,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였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촉탁을

의성군, 마늘 기계화 한발 앞장서

마늘 기계수확 현장 연사회 개최

의성군은 마늘 전과정 기계화 촉진을 위한 ‘마늘 기계수확 현장 연사회’를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인건비도 치솟는 상황이라 마늘 기계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이번 연사회에서는 의성군과 경북대학교 발농업기계개발 연구센터가 의성마늘에 적합한 작업단계별 줄기절단기 및 수확기에 이용한 수확 기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마늘 수확 기계화에 대한 농가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노동

비와 생산비를 줄여 농가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의성은 주대마늘로 판매되며 건조후 선별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나, 기계 수확은 줄기절단과 수확을 동시에 진행하여 관행적인 방법에 비해 노동력은 67%, 생산비용은 47% 이상 줄일 수 있다.

의성군은 마늘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과정 기계화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계화 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은 물론 의성마늘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리더 역량강화 스피치 교육 개강

울진군은 지난 19일 오후 6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울진군 리더 역량강화 스피치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 모임 및 행사 참여시 공개적으로 의사 표현할 상황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신감 있는 의사표현으로 지역의 훌륭한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자 개설하게 됐다.

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별 회장·부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개강식을 시

작으로 주 2회(월요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10회 과정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지역 여성 또는 각 단체별 회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스피치 교육을 당부했다"며 "수강생들도 열심히 배워 스피치의 달인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교육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성황리에 첫 출발

2년 만에 첫 행사, 전국에서 150여 명의 참가객들 발길 쏟아져



문경시에서 지난 17일 개최한 2023 문경새재 달빛사랑여행 첫 행사는 150여 명의 참가객들과 함께 성황리에 막을 열었다.

이번 첫 행사는 문경새재 선비의 상 앞에서 집결하여 5개조로 나누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옛길박물관·생태공원 탐방 △조령원터에서 오미자뽕튀기·도토리묵·오미자 막걸리 체험 △새재 주막에서 다례 시연과 떡메치기 체험 △교리정에서 장원급제 3행시 짓기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으로 내려와 강변전에 모여 옛 선비를 이 먹었던 주먹밥·냉국수 체험 △달빛 아래 감성 가득한 작은 음악회와 장원급제 3행시 시상 및 기념품 증정으로 마무리됐으며, 입선한 10명에게는 오미자청 등 문경 특산품을 제공했다.

특히 3행시 짓기에서 장원급제한 대구에서 온 정OO씨는 "도시에서 벗어나 일상 소음이 없는 문경에서 친구와 함께 새재 활퓌길을 맨발로 걷고, 주막에서 떡메치기 체험을 하며 좋은 추억을 만든 보람찬 여행이었다."고

윤근수/기자



경북도, 태풍 힌남노 재난경험자, 숲속자연의 힘으로 새로운 활력 충전!

경북도는 21일 포항 내연산 치유의 숲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경험자 20명을 대상으로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와 함께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재난유형과 지역실정에 맞는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기획해 재난경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에서 울진 산불 재난경험자 3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지난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포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지 1주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기획됐다.

최근 폭우 등 이상기후를 체감하며 불안감을 느낄 태풍 힌남노 재난경험자들이 산림 속의 피톤치드로 신체에 활력을 충전하고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노림(림) 오감 숲 산책 △맨발 걷기 △별바라기 △심리특강 △심리불명상 △심(은)치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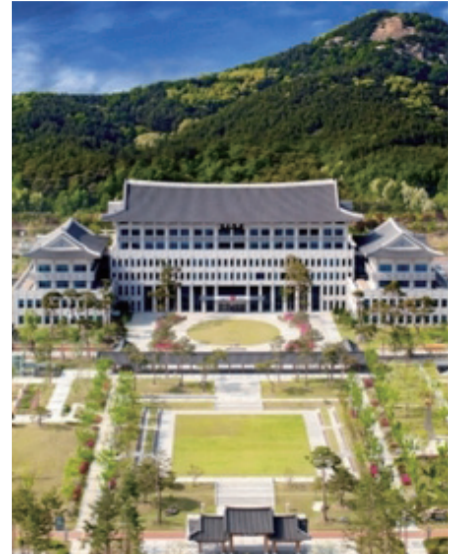
대형재난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태풍 힌남노 발생 초기에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181건의 심리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병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은 새로운 안전복지 서비스 영역인 만큼 마음구호부터 일상회복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을 경험한 도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재난심리 상담활동가 44명을 위촉해 현장부스 운영 및 유선 등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캔버스에서 스크린으로, 확장하는 미술 형식 탐구' 소장품 기획전 '회화 아닌(Not Paintings)' 6월 20일부터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뉴미디어, 사진 34점 소개, 10월 9일까지

대구미술관은 소장품 기획전 '회화 아닌'을 6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대구미술관 1층 1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대구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은 소장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활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시대 미술의 물결을 기민하게 수용하고, 미술관을 대표하는 소장품 수집 방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다.

'모던 라이프'(2021년), '나를 만나는 계절'(2022년)에 이어 2023년 선보이는 소장품 기획전 '회화 아닌'은 미술과 기술 매체의 만남이 가지고 온 미술 형식의 새로운 변화를 살펴본다.

전시는 개관 준비기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작품 중 비디오 매체의 특성을 탐색했던 미디어아트 초기 작품과 동시대 예술가의 뉴미디어, 사진 작품 등 34점을 확장하는 '눈', '떨쳐진 시간', '경계 없는 세계'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조명하고 최근 현대미술의 동향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확장하는 눈'은 비디오 아트의 탄생을 알린 백남준을 포함해 김구림, 김순기, 김해민, 박현기, 백남준, 이강소, 정재규 등 미술의 외연을 확장했던 일군의 작가들을 소개한다. 물성적 특성을 띤 전통적 매체를 탈피하고 비디오 아트가 한국에 도입되고 수용되던 초기 비디오에 관한 설치, TV 조각, 프레임에 대한 형식적 탐구, 개념적 인식으로서의 사진, 대중매체에 대한 관심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 주제 '떨쳐진 시간'은 뉴미디어 예술이 등장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시간'에 주목한다. 캔버스를 대체하는 스크린은 순간의 동

시성을 포착하고 비선형적인 시간을 펼쳐낸다. 기술 발전과 디지털혁명은 매체 간 형식적 실험과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단일한 시각 중심의 미술에서 사운드, 인터랙티브, 채널의 다변화 등 새로운 요소들을 개입시켰다. 이 파트에서는 김구림, 김신일, 오민, 무진형제, 오정향, 임창민, 정정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 주제 '경계 없는 세계'는 가상과 실제의 경계가 불명확해진 예술세계에 대해 조명한다. 데이터 최소단위인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사진과 영상은 편집과 합성이 가능한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예술가들의 정교하고 효과적인 표현 도구로 적극 이용된다. 이러한 매체의 자유로운 변형과 결합으로 예술은 가상과 실제를 통한 유희, 현실에 대한 성찰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물음과 예언을 자유롭게 나타낸다. 유현미, 임택, 임창민, 왕청송, 정연두, 류현민, 이수진, 대비한, 조순, 전소정의 작품을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예술가들에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진, 비디오, 그래픽 편집, 스캔, 합성, 3D 애니메이션, 가상현실(VR), 다채널 영상은 표현 방식의 선택, 확장으로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다 하나의 방법적 도구로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박보람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최신 기술의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 대 작품을 선보이기보다는 미술과 기술의 만남으로 인해 나타난 변화와 그 속성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회화 아닌' 전시는 1970년대 대구현대 미술제에서 현대미술의 중심 역할을 하며 비디오 실험 등 새로운 매체적 실험을 했던 이강소, 박현기, 김구림 등의 대구 작가들과 백남준, 김

순기, 김해민 등으로 계승되어 온 국내 미디어 1세대 작가들의 관계와 최근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시대 작가들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윤근수/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국토교통부장관에 핵심현안 건의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중앙 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남서 시장은 박형수 국회의원,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가발전과 연계된 지역의 핵심현안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주시가 건의한 사업은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영주 첨단배어링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국도5호선(풍기IC) 연결도로 개설 ▲영주담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영주시가지 일주 보행로길 설치 등이다.

박 시장은 원 장관에게 관련부처 인허가 협의를 모두 마치고 국토교통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는 첨단배어링 국가산단이 최종 지정·승인되면 분양

경쟁력 확보와 입주기업 물류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과 중앙고속도로·국도5호선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앞당겨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봉현면 회전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5호선(풍기IC) 연결도로 개설과 용(龍)의 형상을 한 영주호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용·복합 체험관광단지 영주담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주시가지 일주 보행로길 설치사업 등도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박남서 시장은 "영주시의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 시민의 삶이 바뀌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현안들을 건의 드렸고, 장관께서 시급성과 당위성을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박형수 국회의원·심재연 시의회의장과 함께 지역현안 건의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개설 등 6개 현안사업 설명 박남서 시장, "시 현안사업 조속 시행토록 건의, 국토부장관 긍정적 검토 답변해"



전북도, 클라우드 환경 도입... 대민서비스 “안전하고 빠르게”

도, 시·군 서버 313개 클라우드로 전환 완료...효율성과 보안성 강화

전북도가 도·시·군 대민업무 시스템 31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20일 14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행안부 한해남과장, 도 노홍석기획조정실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삼성SDS, 시군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 완료보고회를 가졌다.

클라우드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IT)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돼 152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도와 시군, 산하공공기관의 313개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향후 1년간 이용료를 지원받는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도민 요구와 행정 수요에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군 누리집, 의회 누리집, 인터넷방송, 문화관광 누리집 등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도 정보시스템실과 민간 클라우드센터에서 융합형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도와 시군에서 개별 운영 중인 노후장비를 클라우드로 설계·통합·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보안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서버 운영에 투입되던 전력 소비량의 획기적인 감소가 기대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종전 567,648 kWh에서 75,126kWh로 약 86.8%의 전력이 절약될 전망이다. 이는 연간 235.5톤의 탄소를 절감하는 것과 같은 결과이자, 매년 5만 7,015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와도 같다.

아울러 서버 응답시간도 55.6% 단축했으며, 초당 처리량은 67.53% 늘어났다. 취약한 소프트웨어(SW)의 비율도 58%에서 2.2%로 대폭 감소했다.

도는 앞으로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클라우드를 우선 적용해 친환경시스템 정책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정보시스템 구입 초기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형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안도 강화하게 됐다”며,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완도군, 변천사·행정 박물관 30일까지 전시

‘기록의 날’ 기념 문화예술의전당과 군립도서관에 전시

완도군은 ‘기록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과 군립도서관에 완도 변천사(사진 기록)와 행정 박물관을 6월 30일까지 전시한다.

‘기록의 날’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 확산을 취지로 세계 기록관리협회(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가 정한 세계 기록의 날(6월 9일)을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완도 변천사(사진 기록)는 문화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청해진 주춧돌이 해양치유산업 머릿돌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191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사진 38점)을 만나볼 수 있다. 행정 박물관은 행정의 변천사를 나타

내는 증거적 자료로 역사적·문화적·예술적·상징적 가치를 지닌 형상 기록물이다.

이에 행정 역사의 변천과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 표창, 상장, 수치,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 방명록 등 행정 박물관 40여 점을 군립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하여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기록 관리의 최종 목적은 군민에 대한 공개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기록물을 군민들이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기록 보존 및 기록 문화 확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율/기자



남원시, 중국 심천드론협회장 면담

남원시는 지난 19일 양진치(楊金才) 중국 심천드론협회장을 비롯한 드론산업 관계자들과 면담 및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원시는 이날 면담에서 10월 남원에서 개최되는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 미래항공 모빌리티 엑스포’를 소개하며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중국 심천은 제1회 FAI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의 개최지로 이번 면담을 통해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개최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LX드론

활용센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드론실증도시 등 남원시 드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남원시의 드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 미래항공 모빌리티·드론엑스포’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드론레이싱, 드론축구 등 드론 스포츠대회뿐만 아니라 드론전시회, 드론라이프쇼, K-POP 콘서트, 국제드론커피런스, 드론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남원 FAI 월드 드론레이싱&엑스포 홍보 및 드론산업 육성 의지 표명



올 가을 전남서 전통 수목향에 빠져보세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화려한 작품·체험거리 준비 한창

전라남도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오는 9월 개막하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남녀노소 모든 계층이 수목향에 빠져드는 장이 되도록 화려한 전시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에 한창이다.

개막 70여일을 앞둔 제3회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5개국 160여 유명작가가 참여해 전통수목과 현대수목의 조화를 선보인다. 또한 한국과 전공 대학생과 전국 어린이도 함께 참여해 수목을 즐기는 연령대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목포와 진도 총 6개 주전시관과 광양·순천·해남 3개 특별전시관,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군기념전 등을 통해 전남 어디서든 수목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관별 주제와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장르의 수목작품을 연출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지난 두 번의 행

성있는 일상용품을 만드는 ‘수목 놀이 교실’, 본인의 일상·좌우명 등을 수목으로 표현하는 ‘나도 수목화가’, 족자·화선지·부채·수순간 등 실생활에 쓰이는 물건에 나만의 작품을 소장하는 ‘농담 속 수목체험’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수목작가가 되는 기회의 장이 열린다.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수목을 알릴 수 있도록 지난 7일 가수 송가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홍보대사 이미지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수목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판매는 5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수목비엔날레 누리집, 티켓링크, 네이버를 통해 사전 예매가 가능하다.

입장권 사전예매 시 혜택이 풍성하다. 성인권은 7천 원, 청소년권은 3천 원, 어린이권은 2천 원으로 30% 할



박종배/기자

지역 혁신 이끌 글로벌대학에 순천대 예비 지정

첨단소재·스마트팜 등 전략산업 통한 지역·대학 동반성장 기대

전라남도는 국립순천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돼 첨단소재·스마트팜 등 전략산업 협업을 통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글로벌대학30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성공모델로 키우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대학을 선정해 5년간 각 1천억 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 9월 말까지 비수도권 소재 10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20일 발표한 예비 지정

대학은 최종 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15개 대학을 지정한 것이다.

글로벌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대학은 앞으로 각 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체와 함께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드림팀’을 구성해 순천대학교가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도록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대학 협력 전담반’과 순천대학교, 산업계, 외부자문위원을 총망라한 ‘글로벌대학 지원 전담

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 지원 전담반’은 전남도, 출연기관 등이 순천대학교와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실행계획서 작성 등에 힘을 모으고, 산업계와 외부 자문 등이 포함된 전체 회의에서 정책 방향 및 협력체계 등을 자문·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전남지역 글로벌대학이 라이즈 체계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혁신·발전 선도하도록 집중 육성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국립순천대학교의 글로벌 대학 예비지정을 적극 환영하고, 마지막까지 최종 선

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대학은 지방시대의 양 축으로, 대학과 힘을 모아 미래 100년을 이끌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빛나는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대학지원팀을 ‘대학혁신추진단’으로 확대 설치하는 등 정부의 대학지원체계 개편 방침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구 감소, 산업지형 변화 등으로 지역별 대학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지역대학 육성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나주시, 세외수입 실무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2023년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법 숙련

나주시는 시청사 전산 교육장에서 본청 및 읍·면·동 세외수입 실무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다양한 세외수입 업무에 대한 실무자 전문성 강화와 2023년 세외수입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를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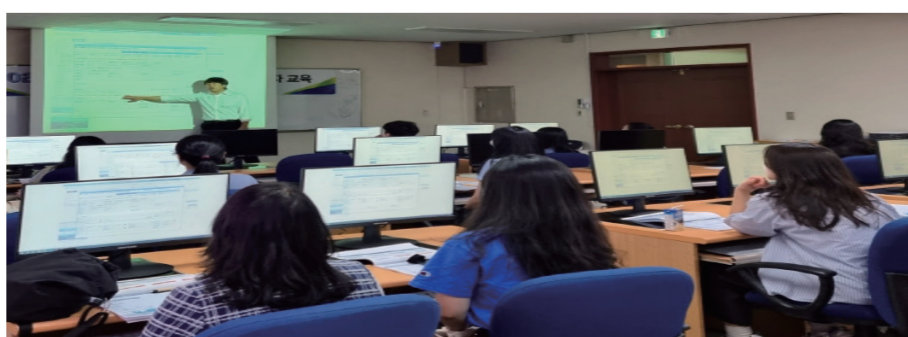
지방세외수입운영단 손영준 초청 강사는 세외수입 개념과 기본지식,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활용 시연, 실습 등 단계별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외수입 부과액 및 체납액 증가 추이에 따른 신속한 민원 처리, 징수 독려 활동, 체납처분 등 징수를 상상을 위한 실무자 역량도 강조했다.

행정서비스 사용·수수료, 경제활동에 따른 재산임대·사업수입, 회계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입금 등 세외수입 항목은 200여개에 달한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



하에 따라서 계획적인 확대 및 개발이 용이해 지자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으로 꼽힌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세외수입 업무 연속성



김영안/기자

사에서 미디어아트, 조각, 설치미술, 공예, 의류 등 지필묵의 한계를 벗어난 수목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한층 진일보한 수목 향연이 펼쳐진다.

전시 이외에 누구나 수목을 즐기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수목을 입힌 복장과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출해 예술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담은 수목패션쇼와 역동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개막식에서 만날 수 있다. 수목과 동양예술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수목콘서트도 마련됐다.

수목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수목 재료로 개

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인 9~10월 수목비엔날레 입장권 하나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진도 윤림산방,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여수 예술랜드, 해남 공룡박물관 등을 포함한 전남 61개소 유명 관광지 연계 할인도 진행한다.

이건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총감독은 “올해 수목비엔날레는 모든 연령층이 즐기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것”이라며 “올 가을 수목을 통해 관광객 모두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구례군,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첫걸음 내디뎠

전남 구례군은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에코원정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남형 생태학습도시조성 사업]이란 주민의 생활 속에서 생태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에코원정대', '에코 리더 활동가 양성'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구례 에코원정대” 프로그램은 지난 17일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진행됐다. 단오 명절을 앞두고 부모와 자녀 참가자 40여 명이 창포를 체험, 한지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군은 7월부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제로 도전 골든벨”, 섬진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섬진강 놀이터, 압화

바탕으로 한 생태 미술 활동, 구례수목원의 수국정원 체험 등 다양한 생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전문 생태 활동가 양성을 위한 “에코 리더 양성과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33 전남 유치에 위한 군민 캠페인도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 동참을 유도하고, 기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생태학습 도시사업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품격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전남형 으뜸 생태학습도시, 섬진강권역 생태학습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장흥 장동면,

벽화 따라 걷는 특색있는 마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장흥군 장동면은 최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조성사업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 소통과 협동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남남도 시책사업이다.

장동면 장항마을과 학산마을에서는 빛바랜 빈 벽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벽화 조성에 나섰다.

학산마을에서는 학과 제암산을, 장항마을에서는 노루목이라는 각 마을의 역

사와 특징이 스며든 벽화를 조성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업에 참여한 한 주민은 “이번 마을 벽화 꾸미기로 우리 마을 특색을 더 부각하고 마을에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앞으로도 활력 넘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앞으로도 9개 마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전남도, 목포-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 ‘청신호’

해묵은 갈등 해소로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 기대

전라남도는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져 택시 이용객의 해묵은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며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심 차를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되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 목포로 돌아와야 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

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무안 택시 사업자들은 사업구역이 통합되면 상대적으로 노른자인 남악신도시에서 1천500대의 목포 택시가 영업을 할 수 있어 137대인 무안택시의 영업이익을 뺏겨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옹골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다. 사업구역 통합을 통해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되고,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옹골지구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조속한 사업구역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구역 통합은 양 시군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후 과반수가 찬성하면 향후 택시 요금 인상 시기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소금값, 예매·유통 등 체계적 대책 마련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최근 소금값 폭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걱정이 큰 만큼 중간 유통단계 축소, 본격 생산시기인 7월까지 예약판매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 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소금값 폭등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산지로서 책임감...합평에 축산 농생명밸리 구축 강조

김영록 지사는 “소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생산자협회와 그 비난이 생산자에게 돌아올까 걱정하고, 수입소금이 늘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시름에 잠겼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격 폭등은 지금 당장 쓰지도 않으면서 사가는 수요가 많은 것이 한 원인이므로, 영업조합·생산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 소금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7월까지 예약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소금 부족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또 “전남이 국내 최대 농업생산지로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고 있는데, 축산업도 과학화·스마트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며 “전남으로 이전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합평을 중심으로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농생명밸리를 육성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와 관련해서 “각 실국과 일선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타 시·도민의 호응으로 38만 명이 가입, 100만 명 목표 달성 전망이 밝다.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도정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라”며 “다만 도민 역할별 논란이 있으므로, 시군과 협의해 도민들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밖에도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도장터유에스(US)몰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각종 의례적 행사나 업무협약 등이 단순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의미를 잘 살려 그 가치를 부여토록 하며 ▲에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통과를 위해 조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배/기자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곧 입주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완료 및 7월 입주 시작

화순군은 지난 18일 오전 화순하니문물 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구복규 군수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담긴 청년을 위한 주거 공약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화순군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화순군에 민간임대아파트가 다수인 반면 공실도 발생하고 있어,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화순군은 작년 7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22. 12. (주)부영주택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4월 말 입주자 모집공고 후, 5월 초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자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입주자 선정을 추천방식으로 결정해 6월 18일 오전 입주자 추첨식을 마쳤다.

추첨 행사는 서류접수 신청자 506명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442명에 한해 추첨 기회를 제공했고, 이날 현장에 409명이 참석하여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추첨 행사는 8시 30분부터 입장이 시작됐다. 정오 무렵 당첨과 미당첨으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제1차 입주분 50명이 확정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2차분 만원임대주택(50호)을 계획대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오늘 탈락했다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8월 공모에 다시 참여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당부했고, 당첨에 탈락한 참석자들은 2차 공급과 내년 공급분을 기대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화순군은 “6월 말까지 선정된 입주자와 전대차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만원 임대주택 입주는 7월 3일부터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부영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7월 입주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윤경호/기자



강진군, 복지사각지대 ‘뽕송 뽕송 목욕쿠폰’ 지원 나선다

강진군지사제, 관내 목욕업체 8개소와 협약 체결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관내 목욕업체 8개소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뽕송뽕송 목욕쿠폰’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뽕송 뽕송 목욕쿠폰’ 지원 사업은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118명 대상자에게 매월 목욕쿠폰 2매씩을 지원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월 복지사각지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쿠폰을 전달하고, 주기적인 상담과 관계망 형성으로 사회적 접촉 기회를 늘려 소외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강진군, 강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목욕업체 등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관내 목욕업체 대표 이모씨는 “군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서 흐뭇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복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올해 5월 2일, ‘1인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청장년,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200가구의 전력 사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해 안부 살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윤호/기자

신안군, 순천의료원 두름박 의료봉사단 하의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4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 및 무료 진료 봉사

순천의료원 두름박 의료봉사단은 지난 6월 17일 토요일 하의면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섬 지역 특성상 의료접근성이 낮은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해 순천의료원 의료봉사단 의사, 간호사 10여 명과 신안군 보건소 직원 10여 명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건강상담,

영양수액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각 마을 이장과 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이동 지원, 생활개선회는 차 봉사, 질서유지 및 어르신들에게 간식을 챙겨드리는 등 면사무소 직원들과 협조하여 어르신들의 의료봉사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순천의료원 신창호 총무과장은 “하의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르신들의 질서 있는 참여에 힘입어 봉사활동에 더 힘낼 수 있었다.”라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지역 어르신들은 “평소 병원을 자주 가기 힘든 섬마을까지 찾아와 무료 진료와 영양수액을 놓아주어 감사하다.”라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조영일 하의면장은 “더운 날씨에도 하의면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오신 순천의료원 봉사단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번

기에 지친 지역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인사 말씀을 전했다.

김영안/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미래 산업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강원지역 현안”

3대 핵심 미래산업(반도체 등) 적극 협조와 주요 현안사업 건의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동력을 이을 새로운 정책 발굴과 국비 반영 등 현안 협의를 위해 6월 20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회의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다양한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외에 김명선 행정부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도 지휘부와 권역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속초인제고성양양), 송연석 예결위 간사, 박정하 예결위 국회의원(원주시갑)과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 당위원장(홍천횡성영월평창), 한기호 국방위원장(춘천철원화천양구), 노홍호 국회의원(비례/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장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통과에 대한 국회 협력에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조속한 3차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2차 개정에서는 지난 50년간 시달렸던 4대 규제(산림·환경·군사·농업)와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자유무역지역지정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권한을 받았지만, 3차 개정은 재정·세제, 대학·교육 등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 특별자치도 출범식(23. 6. 9.)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추진 중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번 협의회에서는 3대 미래산업(강원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헬스와 수소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적극 건의했

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센터·소모품 실증센터·신뢰성검증센터 구축, ▶바이오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체외진단 실증, 노인성질환 진단·예방, AI R&D센터 구축 등,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에타 통과 등이 주요 건의사항이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춘천 우두택지 개발지구와 동면 발달로 소양2교 통행량 급증에 따라 춘천 소양8교 조기 건설과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핑에 최적화된 양양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계절 서핑체험장인 인공서핑 교육센터 건립사업도 건의했다.

SOC사업으로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착공, ▶영월~삼척 고속도로 에타 통과,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타추진,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에타통과로 행정절차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고, 국제행사인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봄 조성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특별자치도청에 방문한 것은 10년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방문을 환영했고,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길은 이미 정해졌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쁨을 충전해줄 것과 작년 국비 9조 시대를 열은 만큼 특별자치도에서는 10조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달라” 라고 이야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강원도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큰 성원을 해 주셨던 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큰 힘이 되어야 할 차례이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거대한 변화속의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박경귀 시장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 제공” 당부

아산시, 2023년 개인택시 신규 면허 교부식 개최



아산시가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교부식을 개최했다.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감차를 추진하는 상황 속에 아산시는 꾸준한 시세 확장과 인구 증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반영한 제4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4대의 증차 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올해는 개인택시 11대(택시 경력자 10대, 시내버스 경력자 1대)를 공급하게 됐다.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관용 아산시 개인택시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면허 대상자 11명에게 교부증이 전달됐다.

박경귀 시장은 “택시 신규 면허를 받기 위해 오랜 기다림을 한 기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새롭게 개인택시 운송수사자로 출발하는 만큼 시민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교정시설 신축을 통한 폐광도시 활력 부여

총 사업비 1,493억 원 투입,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설치 부지 441,082㎡, 건축면적 59,560㎡, 수용인원 1,500명 규모 전액 국비 사업

태백시는 법무부와 지난 16일,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 설계발주를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산지, 상하수도, 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사전협의를 진행되었다.

시는 추가로 7월 초 조달청에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하순경 과업설명회와 설계업체 참가접수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5월에 발주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용역’은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며 보상업무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 교정시설 신축을 통해 태백지역 상경기 활성화와 인구증가, 일자리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어 폐광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5년 상반기 조기착공을 위해 법무부와의 긴밀한 업무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백 교정시설은 총 사업비 1,493억 원을 투입하여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41,082㎡, 건축 면적 59,56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전

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법무부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에서 202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동부순환도로(변재소류지~백호정사) 개설공사 착공식 개최

10년 이상 방치된 미개통 구간(1.98km) 2026년 완공 목표

동부순환도로 미개설(Missing Link) 구간인 변재소류지~백호정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식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봉산동 692-7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동부순환도로는 북부권과 동부권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원주IC와 혁신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다.

2009년 공사를 시작했으나 전체 구간 3.74km 중 봉산동 변재마을에서 소호면 향양리까지 1.98km 구간이 미개통돼 반쪽 도로로 전락했다.

이에 시는 총사업비 980억 원을 투입하여 25년 임시 개통, 26년 완공을 목표로 미개통 구간 개설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원주시 외곽 순환

도로 교통망이 구축돼 외곽에서 도심까지 20분 내 이동이 가능해져 북동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와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교도소 이전사업, 북동부권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그동안 동부순환도로 단절 구간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동부순환도로 공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도, 여름철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도, 옥외·이동노동자 및 돌봄노동자에게 안전용품 배부

충남도는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옥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대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온열 질환이 주로 옥외작업 노동자들에게 집중되는 만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충남근로자건강센터와 ‘폭염 대비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진행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쿨링 마스크와 식염 포도당 등 안전용품을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에 따라 실내 에어컨 이용이 어려운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노동자들에게는 양산과 아이스 밴드 등이 제공된다.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돌봄노동자, 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는 ‘폭염 대비 생수 나눔’ 및 기후변화 위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폭염대비 생수 나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1만여 병의 생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사업이다.

캠페인은 오는 28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작으로 7월 5일, 12일,

20일 각각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당진(석문산업단지), 서산(호수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캠페인 참여는 충남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호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은 “1980년대 평균 7.9일에 불과하던 폭염 일수가 2010년대 14.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기후변화와 노동자 안전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천안시 성정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의 ‘따끈따끈 베이커리’

천안시복지재단 지정기탁 공모사업으로 4학기 동안 다문화 청소년과 가족 지원

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따끈따끈 베이커리’ 특별형을 이달부터 운영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가족에게 다양한 제과·제빵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천안시복지재단의 지정기탁 사업으로 운영 중인 따끈따끈 베이커리는 프로그램은 지역 내 가족들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특별형은 지난 17일 1회기 피자빵과 햄치즈빵 만들기를 시작으로 7월까지 4학기 동안 맛있는 빵을 다문화가족

들이 함께 만들어본다.

정일현 성정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은 “지역 내 유관기관이 원스톱(ONE-STOP) 복지체계를 구축해 청소년과 청소년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천안시 다문화가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했다.

김원호/기자



경북교육청,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한다

진화의 끝! 교육행정서비스의 끝판왕 선보이다

경북교육청은 21일 오전 7시를 기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전면 개통한다. 교육행정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나이스는 지난 2002년 1세대 나이스를 시작으로 약 20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 이르게 됐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고교 학점제, 시간표 작성 도우미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을 적용해 학생부 보존 자료의 보안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기반 교과별 흥미 분석과 학업 성취도 분석으로 학생 개인별 분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150명 규모의 개통 준비단을 발족하고 지원센터의 상담 인력 증원, 공유 채팅방, 전용 홈페이지 운영 등 새로운 나이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교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연수를 경북 전역에서 진행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대국민 서비스는 확대하고 교직원의 업무는 경감시켜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남교육청, “배움중심수업 수석교사와 함께해요”

초등교사 350여 명 대상... 기후환경수업, 인공지능 활용 등

경남남도교육청은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초등교사 350여 명을 대상으로 창원 용마초등학교 등 7개 학교에서 ‘배움·성장·나눔’이 있는 초등 수석교사 배움중심수업 실천과 나눔’을 총 14회 운영한다.

수업 주제는 총 7개로 ▲마음소리와 미덕놀이로 도덕가치 내면화 ▲지구를 살리는 기후환경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참여·협력형 수업모델 연구 ▲토의·토론 기반 협력형 프로젝트 수업 ▲이야기가 있는 감상수업으로 음악적 감수성 기르기 ▲영화‘세 열간이’와 함께 하는 나의 꿈 찾기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원 도입과 단원 정리하기이다.

수업 후에는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는 급격한 미래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에듀테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원 도입과 단원 정리하기’ 등의 주제로 첫날 수업에서 교사들과 열띤 호응과 참여가 있었다.

앞으로 경남교육청은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의 수업 방법, 교수 관련 자료 공유를 통해 교사의 교수·연구활동 및 수업 전문성 향상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2학기에는 수업나눔마당을 열어 교사와 소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수업 실천과 나눔은 4개 권역의 수석교사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주제를 정하고 수업을 함께 설계하여 집단 지성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자로, 참여 교사들은 학생이 되어 함께 수업을 체험해 보고,

장재현/기자

부산교육청, 학부모의 고교학점제 이해도 높인다

고교학점제와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고1 학부모 연수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은 6월 21일과 22일 2차례에 걸쳐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고1 학부모 1,800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및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학부모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생의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연수는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정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된다.

6월 21일 연수는 오후 7시부터 운영한다. 김지현 해강고 교사가 나와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주제, 도선경 금정고 교사가 나와 ‘과목 선택 안내와 학생 사례 소개’를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특히, 도 교사의 강의에는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대학에 진학한 6명의 인터뷰도 공개한다.

6월 22일 연수도 오후 7시부터 진행한다. 박두일 배정고 교사가 나와 ‘대입과 연계한 과목 선택 안내’를 주제로 강의한다. 박 교사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대학 진학 과목 선택에 방법을 알려준다. 또,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관련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연수 교재는 자녀 학교로 배부했으며, 당일 연수를 시청하지 못한 학부모들을 위해 녹화 영상을 시교육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진 자료실에 탑재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의 고교학점제와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연수와 고등학교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 설명회가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경북교육청 7. 1.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단행

승진 117명, 전보 382명, 신규 임용 32명 등 총 531명 인사발령

경북교육청은 20일 오는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대상은 승진 3급 2명, 4급 4명, 5급 8명, 6급 이하 103명 등 117명이고, 전보 4급 6명, 5급 41명, 6급 이하 335명 등 382명, 신규 임용자 32명 등 총 531명이다.

이번 인사는 민선 5기 임종식 교육감 출범 1주년에 맞추어 시행되는 인사로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운영’에 역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했다.

3급은 정보센터 이상국 관장, 구미도서관 장선희 관장이 승진했으며, 정책국장으로서 임용된 최선지 총무과장은 7월 초 승진 예정이다.

4급은 권오규 연구원 총무부장이 안동도서관장, 안영주 청렴감사담당이 상주도서관장, 김영주 화랑교육원 총무부장이 영주선비도서관장, 이상문 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해양수련원장, 박귀훈 비서실장이 총무과장으로 보직변경됐으며, 홍중선 총무담당이 소

통협력관, 박상무 공보담당이 화랑교육원 총무부장, 박경종 조직담당이 포항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박순관 경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비서실장, 김종열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 청렴감사담당으로 승진임용됐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지방공무원 73명의 전출도 함께 단행됐다.

최선지 총무과장은 “이번 정기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인성놀이, 온마음을 잇다’ 경기도교육청, 2023 놀이 토크콘서트 개최

교육구성원 모두 함께하는 온마음 인성교육 나눔과 공유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3 놀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유치원 교원 간 교육과정 실천 공유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는 경기형 온마음 인성교육 실천유치원인 ‘마음이음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중심의 유치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성놀이, 온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경기 유아 인성교육 추진 방향 사전 토크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유를 위한 주제별 토크 ▲현장 교원과의 소통 시간인 못 다한 토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제별 토크에서는 마음이음 유치원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인성 놀이로 유아의 마음 잇기 ▲같이 함께 행복한 교사의 마음 잇기 ▲학부모와 함께 키우는 인성 이야기 ▲인성으로 이어가는 유·초 이음 교육 등 현장 교원 5인이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현장을 비롯해 온라인 유튜브(경기도교육청TV)로 함께 한 참여자들은 유

치원과 초등학교의 인성교육 실천 사례 공유로 유아기 인성교육의 중요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유아기 인성교육은 바른 인성의 첫걸음으로 교사, 학부모가 유아와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유아기 인성 발달이 초등학교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초 이음 인성교육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난도 과학기술, 미래 신산업으로 탈바꿈한다

과기정통부,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국가 R&D 성과를 활용하여 양자기술,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신산업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의 딥사이언스 창업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6.21.(수))에 상정하여 발표했다.

동 방안은 글로벌 혁신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기술분야를 선점할 수 있는 딥사이언스 창업-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 R&D 투자가 세계 최상위권(GDP 대비 4.96%(21년, 세계 2위))인 것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R&D 연구성과 기반 창업의 비중은 낮아 과학기술 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공공부문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조직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 전문기관은 연구 성과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영세한 등의 애로 사항이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업-사업화 지원 생태계의 고도화도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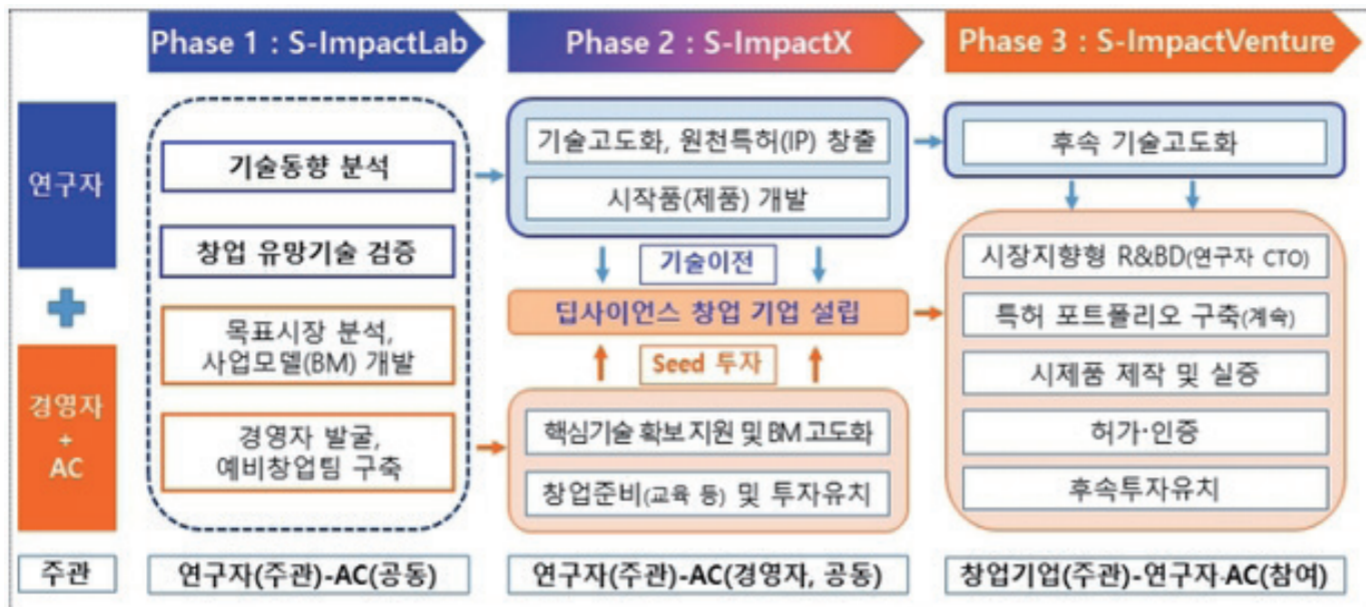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으며, 동 방안을 통해 과학기술 창업 R&D에 '27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하여, R&D 창업기업을 2배 확대('22년 2,879개 → '27년 5,500개, 누적)하고,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도 높이는('20년 75% → '27년 85%) 등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딥사이언스 맞춤형 창업 활성화 지원

○ 연구자-경영자 협력형 창업 R&D 지원

고난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신성장 분야에 대해 연구자와 경영자가 각각의 장점과 역량을 살려서 딥사이언스 창업 기업을 설립하고, 연구사업 기업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 성장을 가속화 하는 등 딥사이언스 분야의 기술혁신과 창업을 병행 지원한다.



○ 경영형 방식의 강한 지식재산 발굴-확보 딥사이언스 분야 유망 연구성과를 경영형 방식으로 발굴하고, 연구자가 특허 출원 단계부터 전문성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강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 조성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대한 시드투자 등 초기 성장을 지원하여 VC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딥사이언스 마중물 펀드를 조성('27년까지 최대 4,500억원)하고, 정책금융 대상에 딥사이언스 분야를 포함하여 딥사이언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공급을 추진한다.

○ 핵심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지원

딥사이언스 창업기업에 필수적인 연구시설이나 장비 활용을 위한 예산 부담 완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2) 딥사이언스 창업 성장 생태계 조성

○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활용 및 기획형 창업 지원 강화

공공연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기획형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기관이 대학 및 출연연의 공공 연구성과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 실사 권한을 강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해외시장으로 이어지는 창업 성장 사다리 구축

창업 단계별/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고, 해외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을 고도화한다.

○ 딥사이언스 분야 혁신제품 지원 및 시범 구매 확대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성 평가 시 딥사이언스 분야에 대한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시범구매 제품유형(물품, SW, 서비스 등)과 구매방식

(구매, 리스, 구독 등)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추진한다.

○ 공정한 성과배분 및 보상방식 다양화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성과보상을 구체화하고, 주식 등 다양한 방식의 성과보상 근거 마련, 연구성과의 활용 확산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 등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공공(연) 연구자가 연구사업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해충돌 사례 및 방지절차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막연한 두려움이 연구성과 활용 창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축적해온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때"라며,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기술사업화-창업정책과 연계하여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하동산 쌀·냉동김밥·차류 유럽시장 간다

오스트리아 PAN ASIA와 하동 섬진강쌀·냉동김밥·차류 50만달러 수출 협약

청정 지리산과 섬진강 일원에서 생산된 하동산 쌀과 차(茶)류, 냉동김밥이 유럽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하동군은 20일(현지시각) 영국 현지에서 유럽 최대의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오스트리아 PAN ASIA 정중환 회장을 초청해 청정 하동 농산물을 소개하고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PAN ASIA는 이날 하승철 군수와 농협 하동군지부 옥종조합, 금남농협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쌀, 냉동김밥, 차류 등 3개 품목 50만 달러어치(한화 약 6억원)의 수출협약을 맺었다.

PAN ASIA는 오스트리아 아시아 식품 및 음료 제품을 공급하는 선도적인 기업으로, 6000여 유통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K-FOOD의 성장으로 하동산 냉동김밥이 큰 인기를 얻고

것으로 예상되며, 하동 농산물의 유럽 시장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수출협약은 오스트리아 PAN ASIA와 하동군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상징하는 중요한 계약으로, 하동에서 생산된 다른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끄는 계기가 될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문화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승철 군수는 "이번 PAN ASIA와의 수출협약을 계기로 향후 두 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확대돼 다양한 하동 농특산물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은 농특산물 수입하는 영국 H-MART을 방문해 영국시장 수출 확대 기회를 마련해 하고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광용/기자



김해시,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7개사 선정

김해시는 최근 1년간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7개 기업을 '2023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공고와 함께 신청기업을 접수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은 스키에피앙 공산업(주) △에코클리어(주) △두리화학 주식회사, △(주)신성사 △창년방앗간 △주식회사 신흥 △부경식품(주)이다.

해당 기업들은 사업량 증가, 사세 확장 등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124명의 직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8개

사를 선정했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 수여 △근로환경개선금 1000만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0.5%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이 지원된다.

홍태용 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안정에 노력해 주신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기업혁신 성장을 위해 디지털물류 같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동북아물류플랫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의 정책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 행정민원봉사 4층에 '기업애로 119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강화와 원스톱 일자리 제공을 위한 '혁명일자리서비스도'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해 매월 이어가고 있다.

최광용/기자

충북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청신호

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정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마련으로 경쟁력 우위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충북대가 지난 6월 14일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에 지정되는 등 충북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가 청신호가 켜졌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은 산업부의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평가 핵심요건이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적기에 육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성화대학 선정은 충북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충북대 주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와 개방과 협업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수준의 반도체 핵심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연 5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향후 중부권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충북은 증가하는 산업계 인력수요 및 실무역량 강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혁신사업(RIS)을 통한 반도체 공유대학을 운영할 예정이며, 충북지역 학생들에게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기업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충북 반도체 공유대학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를 구성을 통한 교과과정 개발과 최종 대학, 교육부의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개강할 예정이며, 대학, 혁신기관 등 인력양성 기반시설을 공유

하고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정보교류를 위한 중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 우수인력 양성은 선순환적이며 지속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반도체 초격차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충북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기 됐다"고 말하며, "충북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반도체 공정설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앞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과 공유대학 사업 등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한민국반도체 강국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금호워터폴리스

-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 관광숙박시설용지 공급 중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중

분양문의 053) **350-0300**

대구도시개발공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 하회마을, 선유줄불놀이 상설시연 실시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 불꽃놀이 '선유줄불놀이'를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19시 하회마을 만송정 일원에서 시연된다.

* 9, 10월은 18시부터 행사를 실시한다.

안동시민과 관광객의 소망을 담아 진행되는 선유줄불놀이는 조선 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어오는 전통 불꽃놀이이다. 전통 방식으로 매듭지는 새끼줄에 낙화봉을 매달아 부용대 절벽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하회마을 만송정에 연결해 불을 붙여 강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듯한 '줄불'과 양반들의 뱃놀이인 '선유', 강물 위에서는 달걀 껍질속에 기름을 문힌 솜을 넣고 불을 붙인 달걀 불이 떠다니는 '연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줄불놀이가 최고조에 이르면 진행되는 '낙화' 퍼포먼스까지 감상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11시~17시까지(마지막 주 제외) 하회마을 내 만송정 백사장에서 선유줄불놀이 낙화봉(솟대) 만들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소원을 작성한 낙화봉(솟대)은 선유줄불놀이 행사 시연에 함께 설치되어 활용될 예정이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낙화봉이 만들어낸 불꽃놀이의 향연이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회마을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한, 마지막 운행 시간인 21시에는 하회마을에서 출발해 송현오거리-태화오거리-신시장-용상CGV까지 시내 운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 9, 10월은 20시 출발 예정으로 행사장 내 교통상황에 따라 하회마을 입구-주차장 셔틀버스 유동적으로 운

행될 예정이며, 또한 탑승인원에 따라 대기발생 가능성 있다.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선유줄불놀이 행사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행사

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회마을 사이트(www.hahoe.or.kr)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충북도 청남대, 나무에 새긴 예술 '서각' 전시 선보여

서각 최고봉, 옥천 출신 강민 작가의 특별초대전 개최

반 고흐를 비롯해 모네, 르누아르 등 다양한 미술기획전을 선보이던 청남대에서 특별 작가초대전이 개최되어 눈길을 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소장 김종기)는 서각미술의 최고봉 옥천 출신 강민(강노형) 작가를 특별 초대해 오는 7월 30일까지 서각작품 등 30여 점을 호수갤러리에서 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청남대가 충북문화예술의 위상을 고양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는 물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첫 작가 특별초대전으로 진행된다.

서각미술의 창시자로 불리는 강민 작가는 대한민국 서각미술협회 초대회장 겸 남서각회 초대회장, 부산예술대 통합예술치료과 서각미술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옥천에서 현대서각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글씨나 글, 그림을 나무에 새긴 작품을 일컫는 서각은 작품을 만드는 조각도의 정교함이 매우 중요해 예술 기법 중에서도 작품을 완성하기 어려운 분야로,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한점 한점마다 예술작품 완성을 위해 자신과 싸우는 작가의 혼이 담긴 결과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강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민화에 등장하는 호랑이, 십장생, 일월오악도, 연꽃 등을 소재로 사용했으며 기독교, 불교, 신선의 세계까지 그 가르침도 그대로 서각으로 표현해 종교에 상관없이 보는이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김종기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관람객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평소 흔히 접할 수 없는 서각 전시를 선

보였다"며 "앞으로 다채로운 미술전시는 물론 공연·문화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남대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남대는 빛의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전(10~11월), 충북미술대전 순회전(7월), 옷칠회화전(8~9월)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정화/기자

강릉단오제에서 더 빛날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

오는 24일 오후 7시, '2023 강릉단오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개최

2023 강릉단오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본선 2023. 6. 24(토) 19:00~21:00
강릉 단오제 수리마당

예선 2023. 6. 14(수) / 동영상 심사

총 시상금 490만원

대상	200만원	1팀
최우수상	100만원	1팀
우수상	50만원	2팀
장려상	15만원	6팀

일시(기간) 2023년 5월 17일(수)~18일 12일(월) 23:59까지
참가대상 전국 청소년 댄스팀 (18세~19세) 19세 미만 팀은 불가
참가비용 참가비용은 50만원 (댄스 및 레퍼런스 영상 제작) * 참가비용: 50만원 (댄스 영상 제작, 레퍼런스 영상 제작, 공연 준비비용 등) * 참가비용: 50만원 (댄스 영상 제작, 레퍼런스 영상 제작, 공연 준비비용 등)
참가신청: 대안문화재단(청남대) 신청서 '2023 강릉단오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접수
참가방법: 참가신청서, 대안 문화재단 115(YouTube) 등
문의처: 대안문화재단(청남대) 문화체육관광팀 033)660-2392
행사장: 강릉시청소년수련관(청남대) 033)660-2392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댄스 페스티벌은 세계문화유산 단오제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4일 진행된 예선심사를 거쳐 선발된 8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다양한 끼와 재능을 펼치고 관내 청소년 댄스팀 외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

그램 소다운 우승 등 비보이로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진조코루의 스킴(김현준), 베로(장지광)가 참여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시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며, 댄스 경연대회 외에도 래퍼 최진성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강릉단오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은 전통문화 전승의 통로이자 체험적 교육 현장을 제공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강릉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해오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단오제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댄스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강릉시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4일 오후 7시 강릉단오제 수리마당에서 '2023 강릉단오제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심사위원으로 세계 비보이 대회 및 2022년 방영된 비보이 서바이벌 프로



청송사과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청송사과의 첫 경매가격은 그 해 사과 시세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0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청송사과. 수출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의 자존심, 청송사과. 사과는 빨갛다는 통념을 깬 혁신 브랜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사과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예천군, 달그리미 숲길 조성사업실 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예천군은 지난 20일 오후 3시, 군수실에서 달그리미 숲길 조성사업 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달그리미 숲길 조성사업은 총 10억 원을 들여 예천읍 서분리 일원에 서분·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마을 안길과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만들고 흑응산의 기존 등산로 정비는 물론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사업 기본 구성 및 향후 계획 등 용역사로부터

보고받은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역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검토 후 사업에 반영해오는 9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달그리미 숲길 조성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숲길을 제공하고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분·노상지구 새뜰마을사업 연계, 흑응산 일원 생활권 숲길 조성

김학동 예천군수,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창출"

영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제1, 2기 예비액션그룹 교육생 60명 대상, 합동 워크숍 실시

오도창 영양군수, "민간조직의 완전 자립화·달성으로 인구 소멸위기 탈출 계기" 되길



영양군(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서는 6월 21일(수)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액션그룹 1, 2기 교육생 60명을 대상으로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무형자원을 민간조직(액션그룹)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활용가치를 극대화시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별천지 영양 공동체 육성'을 비전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이며, 농식품부 본 계획 승인 후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합동 워크숍은 6월 21일, 28일

한울본부, "커피 마시고 친환경 보온·보냉백 받아주세요!"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ESG 경영 실천 위한 이벤트 시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 이하 한울본부)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하고 ESG 경영 실천을 하기 위한 이벤트를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

한울본부는 지난 19일 원전 주변 지역 카페 11곳에 무료백 재생용지 테이크아웃 컵홀더 3만 매를 전달했고, 지역 카페에서 음료 구매 시 제공되는 친환경 컵홀더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친구 한 명 이상을 태그하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다.

한울본부는 참여자 중 30명을 추첨하여 페

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친환경 보온·보냉백을 증정한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 및 협력 카페 목록은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1_han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7월 24일 한울본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되며,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개별 안내한다.

한울본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 기업으로써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한울본부 ESG 컵홀더 이벤트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 ESG 경영 실천 위한 이벤트 시행

이벤트 기간: 6/21(수) ~ 7/19(수) 한 달간

참여 대상: 이벤트 협력 카페 방문객 및 한울본부 인스타그램(@h1_hanul) 팔로워 누구나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벤트 협력 카페(해머지 참고)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한울본부 ESG 이벤트컵 홀더 받기
- 컵 홀더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체공개 게시물로 게시하기 *필수 해시태그 3종: #한울원자력본부, #h1_hanul, #한울원자력카페
- 한울본부 인스타그램 계정의 이벤트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 달기+인스타그램 친구 한 명 이상 태그(지속)
- 내가 쓴 댓글에 달린 '하이한울'의 완료 댓글까지 확인하면 이벤트 응모 완료!

자세한 참여 방법 및 안내사항은 한울본부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QR 찍고 확인하기

이벤트 당첨자 발표 및 참여 혜택

7월 24일 월요일 당첨자 추첨(30명) 및 인스타그램 DM으로 개별 연락

랜덤으로 30명을 선정하여 페트병 용기를 재활용하여 만든 Project1907 친환경 보온·보냉백을 드립니다

문의 | 한울본부 본부 T. 054-785-2941



울릉군, 국제 문화관광 섬 울릉도·독도 발전 포럼 성료

울릉군은 지난 16일 농업인회관에서 2023년 울릉도·독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발전포럼은 학계 및 관광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해 2025년 울릉공항 개항과 1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울릉군의 관광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됐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포함한 울릉군 현황 소개 및 정책 설명에 이어 백석대학교 이윤규 교수의 ▲해양&섬 관광 자원화 정책과 비전 기조 강연과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의 ▲로컬 관광시대, 지역 DMO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제로 열린 특강이 열렸다.

포럼은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초빙 석좌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도영 포항테크노파크 첨단바이옴합센터장의 ▲울릉도·독도 생명 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과 관광상품 연

2025년 울릉공항 개항, 1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준비

계 방안, 유창근 위덕대학교 교수의 ▲울릉도·독도의 문화관광 트렌드 적용방안, 석강훈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의 ▲웰니스 관광과 장기체재 관광의 전망과 과제, 최상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울릉도 브랜드와 관광전략, 김진우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차장의 ▲섬 관광, 크루즈 관광의 사례 발표 등 지속가능한 울릉도·독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비전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조우정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남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본 울릉관광 인프라 개발 방향, 우석봉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에코투어리즘을 통한 지속가능

한 보존계획 및 개발방안, 최윤찬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울릉도·독도 에너지정책 방안, 엄대영 위덕대학교 교수의 ▲울릉도 친환경 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등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관광 개발 방향과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 관광 발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울릉군이 나아가야 할 관광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광정책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제/기자



영양 들머리보기

들머리보기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걷기 좋은 길, 힐링의 길, 자연의 길

물: 맑고 깨끗한 물, 휴식의 공간, 자연의 선물

빛: 아름다운 일출, 아름다운 일몰, 아름다운 별

얼: 전통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문화의 아름다움

맛: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특별한 음식

섬: 아름다운 섬, 힐링의 섬, 자연의 섬

숲: 푸르른 숲, 힐링의 공간, 자연의 선물

강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벽공원, 축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재탐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사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용림산자연휴양림, 강양산천생태박물관, 본재수시생화전시관